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도의 신앙으로 세
위진 이 나라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
자들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이 땅의 백성들이 믿음의 유산
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
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
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
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
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2-2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6월 24일 (토) 제 163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그림다!

제 241주년 독립기념일...건국자들로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신앙과 기도 살펴보기

역사학자들은 미 건국에 이바지한 건국자들은 대략 204명 정
도로 간추린다. 이들은 독립전쟁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 권리장
전, 독립선언문 그리고 연방헌법 등을 만들면서 미합중국의 초석
을 단단히 다져나갔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새로 탄생된 미국 즉 하나님과 국가는
하나("Christ first, our country next!")였다. 실제로, 204명 중
에서 90%는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회 신자들이 미국이 기독교적 원
리들로 세워져나가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수정헌법 1조항의
탄생에는 하나님과 미국을 별개로, 아니면 하나님과 미국을 동일
시해야 한다는 건국자들 간의 간극이 절묘하게 용해돼 있다.

따라서 국부로 인정받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매일 드
렸던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미합중국을 당신의 거룩하신 보호

아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
랑하며 당신의 사랑과 겸손과 평화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
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
소서" 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결국 우리는 건국 당시 인간의
이념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권자인 하나님만을 바
라며, 겸손하게 국가관 확립에 최선을 다했던 건국자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올해로 241주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을 맞으면서 유난히 건국자
들의 겸손했던 모습들이 그리운 것은 이러한 신앙의 힘을 가진 리
더십들을 오늘날 정치 현장에서는 보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
다.

"Christ first, our country next!"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
국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건국이념("Christ first,
our country next!")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선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
대륙으로 떠났고 건국 후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놓았다. 하나님이 미
국을 다스리심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해왔
는데 최고지도자인 대통령부터가 그랬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 집에 머물 모든 이들에
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겠소.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집에서 대
통령 직을 수행하게 되기를 말하오."

에덤스 대통령이 백악관 업무를 시작한
지 둘째 날 밤 아내에게 쓴 편지에 적힌 이
기도문은 현재 백악관 식당 벽에 새겨져 있
다. 100년 후 백악관 주인이 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것을 읽고 감동받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4월 30일을 국
가적인 겸비와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면
서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
고 힘과 권력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맞보지
못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천교도 신앙으로 출발한 미국 지도자들의 신앙 회복이 기독교인들의 기도제목이 되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이 나라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
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905년 3월 4일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
트 대통령은 취임연설 중에서 "이 지구상에
우리들만큼 감사할 이유가 많은 국민은 없
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
음에서 이러한 말을 해왔습니다"라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연설을 했다. 그랬기에 대공황이라는 전대
미문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뉴딜
정책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게 되었다.

(3면으로 계속)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 비춘다!

CT, 인신/성 매매로 어두운 캄보디아에서 희망의 씨앗 심는 크리스천들과 NGO 활약상 보도(하)

인신매매에서 벗어난 여성과 남성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주 많다. 차브 다
이의 지도자 스원은 씬터를 떠나 (새로
운 직장을 얻고 결혼해) 성공적인 삶의
변화를 시작했던 한 여성이 몇 년 후 자
살을 시도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세
계 최초로 인신매매 희생자에 관한 장
기 연구를 시작했다.

8년이 지난 현재 스원의 "버터플라이
프로젝트"는 돈 걱정과 정서 불안, 낙인
에서 벗어나지 못한 120명 이상의 생존
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여성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낼 책임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크
매르어로 된 3000건에 이르는 추적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스원은 말했다. "

는 아니다. 대다수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었고, 속수무책의 부모로부
터 학대받았고 무시당했었다. "그 나이
에 온갖 트라우마를 겪은 소녀들로서는
견디기 힘들지요. 그들은 쉽게 믿지 못
하고, 감정이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플
레로마의 사회복지사 네스 김상이 말했
다.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싶니"라
고 그들에게 물었지요. 왜냐하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니까요."

기독교 씬터들의 프로그램 속에는 복
음이 들어 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라
거나 개종을 요구하지 않지만 많은 소
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발견한
다.

"업보"라는 불교관념이 희생자들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들은 '전생에 한 일
때문'이라거나 '운이 없어서'라는 말을

인신매매서 탈출 여성들이 사회로 돌아가 겪는 문제도 추적 "회복 과정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고백

구조란 평생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유명한 교의 지역에 있는
플레로마 소녀쉼터. 블록바닥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소리와 까르르 웃음소리가
대문 안뜰에 울려 퍼진다. 열 살 안팎이
거나 십대 초반의 스무 명 쯤 돼 보이는
소녀들이 놀고 있다. "제가 가치 있고 특
별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았
어요." 18세의 한 소녀가 말했다. 이 소
녀는 몇 주 뒤에 친구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걱정했다. "제 문제를
적시하고,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준답니다."

플레로마의 소녀들은 모두 성매매와
성폭행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
시엠펙과 바탐방에서 씬터를 운영하고
있는 '라파하우스'의 지부장 한나 버클
이 말했다.

업보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지
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삶을 변화시
키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 많은 생
존자들이 자신들이 회복 과정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
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 거의 모두가 마을로 돌
아가면 새로운 신앙 때문에 다시금 소
수자가 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 (D.Min), 교회음악학사 (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채플린 임성목회
박동서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운석 목사



8면
글로벌리싱어즈 창단 20주년
및 제 6회 정기연주회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최근에 파푸아뉴기니의 쿠오트 부족을 위해 16년간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준 정 철화 선교사가 신약성경 오디오 불현식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유능한 선교사가 인내로써 맺은 열매가 풍성함을 보면서 성경번역 선교사들의 수고가 새삼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궁금했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세계가 놀라는 큰 부흥을 이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러한 부흥운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진지 되짚어보았다.

1878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파송한 존 로스 목사의 마가복음이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다. 원래 로스는 중국에 선교사역을 하러온 사람이었는데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 도착한 지 1년도 안되어 아내를 잃는 절망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1876년 그는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청나라와 한약재를 무역하며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한 지식인 이응찬이었다. 당시에 서양인을 돕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이응찬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달아서 도움을 주었고 아직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위협하며 돈을 뜯어서 이응찬은 도망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1879년 봄에 이응찬은 먼저 믿은 백홍준 등의 친구들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사업의 실패를 통해 가까이 했던 아편과 술을 끊지 못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완전히 끊기로 결심을 한 후 1879년 7월에 존 로스 목사의 제부가 되는 매킨타이어 목사에 의해 중국광 만주의 영구라는 지역에서 한국 개신교인으로는 세 번째로 세례를 받았다. 이외에도 당시 로스 선교사를 도와주며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 보급한 백홍준, 서상륜, 김청송과 같은 이들이 한국교회사에 별같이 빛나는 존재들이다.

한국의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는 100여 년 전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개신교의 1/3수준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는 천주교회에 대해 "1784년 이승훈이 교회를 창설한 이래 1866년까지 8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쪽복음서 한 권이나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할 당시 이미 평안도 의주 지역에 100여 명(백홍준 전도), 서울 지역 300여 명(서상륜 전도)의 세례 지원자가 있었다. 또한 만주 땅 집안 지역에는 한인교회(김청송 전도)가 존재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성경이 권사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의해 쪽복음서 형태로 팔렸고, 그렇게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개신교회는 초창기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말씀 중심 신앙이 꽃피었고 한국교회의 초기에는 부흥회라는 말보다는 사경회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하였다. 1890년 채택된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근간으로 사경회가 널리 시행되었는데 이 사경회가 부흥운동을 위한 영적 각성의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도 사경회에서 비롯되었고,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장대현교회에서의 평안남도 남자 도사경회도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두 주간의 집회에서 계속 말씀을 받다가 일어났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인 해이다. 종교개혁은 본질회복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은 두 권의 성경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그 하나가 말틴 루터를 통하여 로마서를 중심으로 일어난 구원론적인 각성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존 칼빈을 통하여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 실천론적인 교회의 각성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는 이 두 가지의 개혁이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 성도 개개인을 만나서 확인해보면 교회를 그리 오래 다니고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부지기수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교인들에게 전도폭발과 같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를 강력히 느낀다. 동시에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존 칼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개인과 사회의 개혁운동의 가치를 다시금 높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보아야 하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념' 잡아야 테러 끝난다!

뉴스위크, 맨체스터 테러 후 다시 불거지는 지구촌 대 테러전략부재 경고와 대안분석(상)

올랜드(미국), 니스-파리(프랑스), 브뤼셀(벨기에), 베를린-뉘르츠부르크-안스바흐-뮌헨(독일), 런던 그리고 이번엔 맨체스터(영국).... 갈수록 익숙해지는 패턴이 절망을 안겨준다. 흐릿한 휴대전화 영상과 함께 속보가 타전된다. 니스의 해변 산책로를 거닐던 보행자들,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쇼핑을 즐기던 소비자들, 팝 콘서트 장을 나서던 들뜬 청소년들. 그리고 총성, 미친 듯이 질주하는 트럭 또는 섬뜩한 폭발 현장의 공포.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달아나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진다. 얼마 뒤 정치인들이 TV 카메라 앞에 서서 비난과 애도 성명을 발표한다....

테러범들에 관한 언론의 묘사는 이제는 더욱 익숙하다. 외로운 늑대, 사회 부적응자, 가난한 무슬림 이민사회 구성원 등 대부분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추종자들이다. 맨체스터 폭탄 테러범은 소외당하고 분노한 젊은 이민가정의 자손이었다. IS에 빠져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2015년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테러범들, 6개월 뒤 브뤼셀 공항을 공격한 자폭 테러범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서방을 겨냥해 최소 15건 이상의 공격을 자행한 테러범들과 다르지 않다.

뉴스위크는 IS 이념을 말살하지 않는 한, 맨체스터 자폭 공격 같은 테러가 끝나기는커녕 더 보편화될지 모른다고, 결국 이념을 잡아야만 테러와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THE MANCHESTER BOMBING AND WHY THE BATTLE AGAINST ISIS WON'T END WITH IRAQ AND SYRIA, 두 번에 걸쳐 연재한다).

자폭테러범들의 개인적 동기는 다양하다. 맨체스터 테러범 살만 라마단 아베디(22)는 리비아 출신 영국 이민자 부부의 아들이었다. 지난해 반무슬림 증오 범죄에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친구의 죽음에 분노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이 깊이 우려하는 공통분모가 한 가지 있다. 테러범들이 IS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들로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군과 쿠르드족 부대가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술의 IS 근거지를 향해 진격하면서 그 지하다(성전 전사) 조직이 와해돼간다. 그에 따라 빨빨이 흩어진 대원들과 추적하기 힘든 동조자들의 보복 공격 물결이 일



맨체스터 시민들은 산타 앤 광장에 모여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회복력과 품위를 과시했다.

랜즈(맨체스터와 버밍엄 포함) 방문 때의 사진들을 휴대하고 있었다.

2005년 런던의 버스과 지하철에서 자생적 지하다들의 자폭 테러 2건으로 52명이 희생된 뒤 영국에 대형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효과적인 첩보수집과 영국 무슬림의 협력에 있었다. 정보부 당국자들은 2013년 이후 중대한 음모 18건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런던 경시청의 대 테러 감시 담당 전국 총책임자 닐 바수는 지난 4월 영국 전역의 경찰이 테러를 막기 위해 "거의 날마다(용의자들을) 잡아들인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난 4월 28일에는 런던에서 여성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며 체포하는 등 극적인 검거 작전으로 하루 사이 두 건의 음모를 저지했다.

영국 정부비상대책회의실(일명 COBRA) 브리핑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어느 대 테러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뉴스위크에 이렇게 말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말했듯이 테러범들은 한번만 운이 따라주면 되지만 경찰은 매번 행운이 필요하다. 우리에게겐 유능한 현장 요원들이 있다. 몇몇 다른 유럽국가 테러 당국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훨씬 더 좋다.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해주는 유능한 파트너들도 있다."

지하다 조직 와해로 흩어진 대원·동조자들 보복 물결 우려 영-미-러시아 대 테러공조 제대로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

어날 것이라고 서방 안보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예컨대, 아베디는 리비아에서 귀국한 며칠 뒤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장에서 배낭에 숨겨 반입한 금속 케이스 폭탄을 터뜨려 22명(주로 어린 소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IS가 리비아에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아베디가 앞선 여행 중 시리아의 IS 근거지도 방문했을 수 있다. 어쨌든 아베디가 사제 폭탄에 사용한 폭발물은 지난해 브뤼셀 테러에 사용됐던 것과 비슷했다. 브뤼셀 테러도 IS에게서 훈련 받은 무장대원들의 소행이었다.

아베디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테러 분석가들

은 말한다. "새로운 위협, 이슬람 호전성의 과거·현재·미래"의 저자 제이슨 버크는 "지난 15-20년 사이 한 사람이 혼자 폭탄을 제조해 터뜨린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테러 며칠 뒤 맨체스터 경찰은 1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한 아파트에서 사제 폭탄 제조를 도왔다고 알려진 남성들 포함). 리비아 경찰도 트리폴리에서 아베디의 아버지와 동생 체포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IS는 얼마 전부터 영국을 염

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모하메드 아브리니는 브뤼셀과 파리 테러에 모두 관련된 모로코계 벨기에인이다. 지난 4월 벨기에 경찰에 체포될 당시 영국 미들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의 감청국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종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p>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p>	<p>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p>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그림대!

(1면에서 계속)

한편 건국자들에게 미국의 독립은 식민지 생활을 중단하려는 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추구한 '자유'는 타국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의 탈출 정도가 아니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반영돼 있었다.

다시 표현하자면,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기에, 영국은 미국 식민지에 사는 사

람들에 대한 착취를 포기하고 주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시작은 자유와 평등이었다. 이것이 바로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재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올해 2017년이니까, 1776년부터 241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미국이 어떻게 변화돼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고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독립당시 건국자들의 신앙보다는 인권과 연관돼 각 개인이 주장하는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

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론으로, 트럼프 정부를 맞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공약이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권에 철저히 소외당했던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치적 어휘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만들어지는 미국인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정치지도자와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것이 이번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아뢴 기도제목이 될 것 같다.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 비춘다!

(1면에서 계속)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 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거부당했는지 가르칩니다." 버틀이 말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않지요."

캄보디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바탐방에 위치한 라파 하우스 쉼터에는 70명이 넘는 소녀들이 있다. 이 쉼터는 미술 치료 공간으로 설치된 알록달록한 보트부터, (자폐증이나 뇌성마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생계를 위한 원예나 재봉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다시 프놈펜. 화이트 빌딩에서 구조된 소녀들이 머물고 있는 AIM회복쉼터에서 직원들이 청각장애인 회생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어를 배우고 있다. 이 쉼터는 십대 나이에 아기 엄마가 된 임신매매 회생자들을 돌보며, 학교에 다니는 그들의 갓난아기와 유아를 돌봐준다.

결국 캄보디아는 지난 10년 동안 아동 성매매를 줄이는 데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임신매매는 더 깊은 지하로 파고 들었다. 국경을 넘나들며 소아성도착자들에

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성매매업자들은 두세 가지 문제를 더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치인이며 임신매매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부의장인 초우 번 앵은 말했다.

착취는 캄보디아인들에게 지속적인 싸움이며, 또 다른 인내의 시험이다. 그러나 그녀는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 믿

는다. "우리는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교도 공무원인 그녀가 사무실에서 말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임신매매 퇴치에 큰 진전을 보여준 기독교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와 NGO 지도자들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향후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때, 찬드라 켈은 그녀가 돌보고 있는 24명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가을, 플레로마의 이 캄보디아계 미국인 운영자는 4명의 소녀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준비를 했다. 이미 4년을 쉼터에서 보낸 소녀도 있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합니다. 소녀들의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2011년부터 자기 나라에서 어린 생존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온 사회복지사 켈은 말했다. "저는 그들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엑셀런스시'(Excellency)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라는 뜻이지요. 저는 그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끝)

'이념' 잡아야 테러 끝난다!

(2면에서 계속)

NSA는 에드워드 스노든(NSA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전 요원)이 말했듯이 전자 감청, 방대한 데이터 속의 행동개시 암호와 의심스러운 행동을 추적해처럼 집어내는 분석 능력에서 세계 최고다.

그런 거대하고 정교한 그물망에는 상어뿐 아니라 피라미까지 걸려든다는 문제가 있다. 아베다가 테러 음모를 계획하기 최소 2년 전 잠재적인 극단주의자라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다. 지하도 지지 발언으로 지역 모스크에서 쫓겨난 뒤였다. 그러나 용의자 감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이라고 앞서 말한 익명의 보안 당국자가 말했다.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 소리만 크고 무해한 허풍선이 있는 반면 소리 없이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인물도 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영-미간 보안 협력체제가 맨체스터 테러의 여파로 타격을 받았다. 영국 경찰이 미국 측과 공유했던 범죄현장 세부 사진이 미국 언론에 유출된 뒤였다. 맨체스터 경찰은 추가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는 민감한 정보의 정기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곧바로 이는 지역적인 결정이며 전략적인 첩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며칠 뒤 공유가 재개됐다.

그러나 영국 보안의 더 심각한 꺾은 런던과 모스크바 간 정보 협력이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러시아 당국자들은 말한다. 영국의 사법조사에 따르면 2006년 망명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가 2006년 런던에서 러시아 요원에게 독살당한 뒤의 일이다. 러시아연방회의(연방회의의 상원) 외교위원회 올레그 모로

조프 위원은 "이제 그 연결이 끊어졌으니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더 위험해진 건 분명하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우리는 차르나예프 형제들(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정보를 신뢰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리아의 IS를 예의 주시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기회 있을 때마다 IS 편에 선 러시아인을 제거한다. 그들의 귀국을 허용하면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계속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IS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도 영국과 미국의 테러 감시 당국과 별도로 움직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유세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IS와 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껏 미국·영국·러시아 간의 첩보 공유는 "빙하기"라고 모로조프 위원은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재플린 임상목회 ⑥

채플린 제도의 간략한 역사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채플린하면 군목 정도로 이해하고 목회를 하시거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많 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 놀랄 일도 아닙니다. 브리태니카 사전에 따르면, 채플린의 역사는 무려 기원 후 4세기경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수 받은 성직자로서, 7-8세기 경에는 모든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국가와 군인들을 위한 종교적 예식을 주재했다고 합니다. 라틴어 카펠라니(cappellani)에서 채플린(chaplain)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사역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부터 채플린 사역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바, 독립전쟁을 위한 군대가 조직되면서 군인들의 영적인 정신 무장을 위해 유럽의 역사적인 채플린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 발하면서 근대적인 군목제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 브리지와 같은 근대적인 대학들에 존재했던 학교 교목제도 역시 미국에서는 청교도 정신 하에 미 동부지역에 설립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 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목들이 임명되어 활동하 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플린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근대적 인 대학 병원 및 도시별 종합 병원이 건립되면서 환자들과 스태프들을 위한 병원 원목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이미 대두되기 시작한 채플린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920년 대 중반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주립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병원 감독관이었던 윌리엄 브라이언 박사가 안톤 보이센 목사를 채용해서 병원채플린으로 임명하면서 최초의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역사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acpe.edu/pdf/History/ACPE%20Brief%20History.pdf>). 초창기 임상목회교육 내용은 대표 적 기독교 교단들의 감수와 수많은 신학자와 현장 사역자들의 도움을 거쳐 오늘날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가 공인한 미국임상목회교육협회(ACPE)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통해 통일된 기초 교육 훈련 과정 을 제공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표준 임상목회교육 과정을 보급해 가고 있 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플린 사역은 병원 원목(Healthcare Chaplain)이며, 미국 의 모든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는 환자 평균 50명에 한 명꼴로 채플린들이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뿐 아니라 너싱홈, 은퇴자와 노약자들을 위한 간호시설, 호스피스 기관마다 원목들이 배치되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 및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 육해공군 모 든 부대와 기관에도 군목이 의무적으로 있으며, 교도소마다 역시 채플린들이 상주하며 재소자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 역 경찰서마다 경목(Law Enforcement Chaplain)들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 들과 기독교/캐톨릭계 중고등학교에도 교목들(School Chaplain)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스포츠팀마다 채플린이 있으며, 직장 단위로 사목 (Corporate Chaplain)을 두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닭고기 생산업체는 미 전국에 무려 백여명이나 되는 사목 들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애로 사항들을 돌보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치 기관에도 채플린이 있는데, 미상하원 국회나 주정 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에도 전담 채플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직급과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풀타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훈련 기관(종합병원 및 신학교)에서 수료한 임상목회훈련(CPE) 4unit(1600시간) 에 신학교 목회학석사학위(M.Div.), 미국에 정식 등록되어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Ordained Pastor)로서 적어도 3-5년 정도의 경험, 미국 채 플린 협회인 APC(=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에서 2,000시간의 직장 실무 경험을 쌓은 후 BCC(=Board Certified Chaplain) 자격증을 취득해 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미국내 어디든지 채플린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일단 채플린으로 고용되면 은퇴연령도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얼마 든지 오래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서는 매니저나 디 렉터까지도 승진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에 은사가 있으면 슈퍼바이저(감독) 과정을 거쳐 채플린 훈련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수까지 겸임할 수 있게 됩 니다.

tdspark@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회서신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박성규 목사 (주세운교회)

제가 14년 전 남가주 사랑의교회 특새강사로 갔을 때 교회현관에 섬김의 상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조각해 놓았는데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긴 머리카락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상 아래에 "To see his face, Kneel before Christ!(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면 무릎을 꿇으세요)"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머리카락에 가리워진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세를 낮추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번 5월 28일부터 6일간 KCSJ(Korean Christian Shalom Jerusalem) 주최로 예루살렘에서 2017 Shalom Jerusalem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6개국에 흩어져 살던 한인봉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날아가 유대인 선교를 위해 6일간 헌신하며 에스클론, 예루살렘, 하

이파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2천명 3천명씩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하이파 공연에서 제가 회개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회개선언문 낭독" 시간이 공연 3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 하면 중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성지탈환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슬렘뿐 아니라 유대인들

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 해서 회당에 남녀노소를 가두고 불살라 죽이고 목 잘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75%인 독일교회가 히틀러의 만행으로 유대인을 600만명이나 죽일 때 히틀러를 축복하고 그 모든 일을 방관한 자들이라는데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모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연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 회개선언문의 중간부분을 낭독하였습니다. "although, korean christians have never directly oppressed the Jews. We kneel down before you, as followers of the Yeshua, and repent."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만 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 네가 모

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으라. 죄 없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듯이 내가 대신 무릎 꿇고 저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긴 회개문 속에 유일하게 예수(Yeshua)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의 가슴에도 구세주의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다면 나는 천번 만번 무릎 꿇겠습니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온 2천명의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며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진정한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저에게 달

려와 손잡으며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한분이 제 손을 잡고 "From my heart to your heart"라고하며 허그(Hug)하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정말 저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까? 진심으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야곱이 예서 앞에서 먼저 무릎 꿇을 때(창 33:3), 20년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이웃끼리도, 직장 동료 간에도, 원수가 된 사람과의 사이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무릎 꿇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푸/른/초/장

이경종 목사 (필라델피아교회)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기이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랴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놀라시듯 크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로 결단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칭찬 받는 믿음의 사람은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삽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신분은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군인입니다. 당시 종교적 신분으로 보면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말로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끼지 않고 회당을 세워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준 셈이 됩니다. 또한 백부장은 평상시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아닌 다른 아님, 종이었습니다. 당

시에 종의 신분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에 불과한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2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

고 진실한 행실로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칭찬 받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는 것은 최고 수준의

가진 자만이 그 마음에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산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으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65장에 보면 어부로 잔뼈가 지난 시몬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질 때 그물

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문자화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레마는 그 로고스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 것으로 받아드리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에서 로고스는 330번 레마는 68번 다르게 쓰여진 것은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겔 3:3 "내게 이르시도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풀 같더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시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고스가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면 레마는 '믿음의 결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글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할 때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레마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누가복음 7장1절-10절)

1. 칭찬 받는 믿음의 사람은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삽니다.

을을 기이히 여기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에서 착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은 이 같은 헌신과 희생적 사랑의 행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집회에서 큰 소리로 주여 삼창만 한다고 간절한 믿음일까요? 행 17장에 나오는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의미는 '운유하다'의 뜻으로 그들의 성품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진리에

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5:13에서 주님은 성도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마음과 헌신과 사랑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일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착

믿음이며 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10:35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고 참으로 놀란 이유는 율법에 도통했다는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안다는 서기관들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대제사장을 전보다 백부장이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고, 온전히 믿었고 겸손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변하여 믿음의 비밀을 이 믿음이므로 내 심령 깊은 내면에 닿을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

(14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침체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의 특 징은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는 사실 이다. 또한 예배가 보여주는 의식 중 심으로 흐르게 되고, 불필요한 많은 논쟁과 변론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자연스 런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예 배가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나고 회 개가 나타나며 은혜가 풍성해짐을 목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예배가운데 드러지는 찬양도 마찬가지이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 을 위해 찬양하거나 자신의 감정의 기복을 실어 찬양한다면 성령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감 정표출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 이 되는 경우이다.

형식적 예배의 필연적 타락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과 연결된 형식적인 신앙의 행태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증거가 된다. 더욱 분명한 것 은 말라기서에 나타난 외식적 심의 조, 제물에 대한 속임수, 율법의 근 본정신에 대한 무시와 심령의 완고 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보 여준다. 본질이 상실된 형식은 반드시 타락하게 됨을 적시해주는 교훈 들이다.

본질이 살아있는 바른 예배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른 예배는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이다.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 씀하고 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For I desired mercy, and not sacrifice; and the knowledge of God more than burnt offerings)”(호6:6).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를 찾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

예배보다 종교를 원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예 배가 아니라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 씀을 따라 가는 것이 진리이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 뻐 받으신다. 더불어 잠된 진리 안에 서 행하여지는 이러한 예배에는 반 드시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시 게 됨을 볼 것이다.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예배를 경험한다.

교회들이 예산도 있고 프로그램 도 있어 빠르게 돌아간다. 하지만 모 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 한 채 친목하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에게 굴복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한 자신의 믿 음을 자랑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 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을 땅 에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도울 것이 라는 자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생활이 좋

있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보 여주는 사데교회 같은 곳이 되었음 을 본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다’는 주님의 음성처럼 실제로 생명이 없는 교회가 사데 교회였다. 그런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수가 말라 버렸던 것이다.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동과 각격이 없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신앙의 성숙이 아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음 을 보게 된다. 물론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도 있어 어떤 것으로든 속단 할 수는 없었지만 예배의 위기라는 현실에 분명히 직면하고 있음이 주 지의 사실이다.

예배의 회복 - 세상의 회복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에서는 한달에 한번은 주일오후에 전도지와 설교CD 를 가지고 인근 마켓에 전도를 나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도해도 전 도의 열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켓전도를 통해 교회로 오는 사 람은 거의 없는데 목사님은 마켓전도를 계속해야 한다는데요....
-사우스베이에서 권

A: 좋은 질문입니다. 밀러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평생 평균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들으며 20,000번 찬송을 부르는데 불신 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몇 십번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들에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전도입니다. 100명중에 2-3명만이 전도 를 합니다. 말씀은 잘 듣는데 전도 안하면 매일 밥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민교회의 처한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젠 한국 에서 오는 이민자도 적고 다 차를 타고 다니기에 개인 접촉하기도 쉽 지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마켓전도가 가장 용이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켓 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신자도 많습니다. 제가 사는 남가 주는 한인 이민자의 73%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켓전 도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켓전도해서 그것을 통해 새신자가 오는 확률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1-2% 밖에 안될 것

마켓전도는 좋은 전도훈련...듣던지 안 듣던지 해야

으로 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마켓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 오신 가 정도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곳에 이사 오거나 교 회를 찾는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켓전도는 많은 전도의 열매보다 교인들을 전도 훈련시키는 관점 에서 볼 때 좋다고 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인데 마켓전도가 열매가 적다고 해서 안하면 교인들을 전도 훈련시킬 방법이 별로 없 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가 많던지 적던지 기도하며 순종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다보면 하나님이 예비하 신 심령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인근으로 최근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나 과거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듣던지 아니 듣 던지 전도서 11장 4-6절 말씀처럼 풍세를 살피지 말고 전도해야 합 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 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 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지를 네가 알지 못할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 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돌이 잘 될 런지 알지 못함이나라.”

“하나님이 왜 무릎 쓰셨는가?”란 책을 제 부친인 이인한 목사님 이 번역하셨는데 그 책을 보면 (D. L. Moody)는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에게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급히 따라오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더라. 나는 바빠서 그런 것을 들고 믿을 시간이 없으니 저리 가라고 하니 이 전도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만큼 바쁘고 급한 일은 없으니 예수 믿고 가야한다”며 붙들고 늘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 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누구요? 하니 “무디(Moody)”라고 대답하 더랍니다. “당신이 하는 전도가 왜 그리 시급합니까?” 하고 물으니 “당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옥 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지금처럼 믿지 않고 살아야면 마치 막 종착역이 바로 지옥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다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세상과 죄를 이김-II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삶, 부담 는 교회생활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주님의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 한 채 그대로 행할 뿐이다. 모든 것 이 형식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형식화된 예배의 특징이다. 이런 상 태로는 빛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 는 어둠에 머무는 존재가 되어버 린다.

예를 들어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 배에 나오고 늘 빠지지 않고 나오며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예배드리 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배함 은 참 좋은 습관이다. 그러나 더 중 요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그런 형 식에만 매인다면 그는 결코 올바른 예배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 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주목함이 없이 그를 통과 의례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이 니 잘못된 예배자의 전형이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 고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다. 예수 그 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없이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형식 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 달아야 한다. 성령의 수많은 일들이 이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의 타락

해서이다. 주님을 쫓아다니던 백성 들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 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모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예배 가 성립될 수는 없다.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를 받 으실 주님이 없다면 예배가 성공했 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잠된 예배의 승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주 님이 찾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 나는 과정이 예배이다. 그분을 만나 경배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감사하 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 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배 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바른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가 형식적일수록 신앙은 타 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된 신앙일수 록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타락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 하는 길은 오직 신령과 진리 안에서 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것 외에 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24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 씀, 곧 진리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 경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더 라도 그 역사가 말해준다.

교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배가 운데 하늘로 부여주시는 은혜로 말 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감격 과 기쁨이 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신앙의 종교화를 막아내는 능 력이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모이게 된 교회에서의 예배는 말씀과 성령 이 주관하시는 예배였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임 때 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 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 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 14:26). 초대교회시대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를 위해 힘써야 한다.

형식과 형식주의
형식은 아름다운 틀이지만 그러 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타락된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지 않 는 교회라고 말해야 한다. 흔히 “다 람쥐 쳇바퀴 돌 듯 신앙생활을 하고

다. 특별한 생동감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켜나갈 별다른 책 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때문 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 셴다. 무슨 일이든지 10년 이상을 하면, 저절로 술술 손과 입과 발이 절로 움직여지며 언제나 작품들이 나오는데, 설교는 날마다 힘들고 어 렵고 한편 한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다. 낮두리처럼 고백 하셨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말씀과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과 주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실패하면, 필 연적으로 삶의 영역에서도 무너짐 과 실패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와 인애에 풍성한 하나님은 진정한 참 예배가 회복될 때, 만물을 소 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하게 채워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세 상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 고, 신앙의 종교화를 막아내며 마침 내 삶의 인격과 현장에서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즉 바른 예배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과 성도 의 삶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참 소 망이 되는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2017년 가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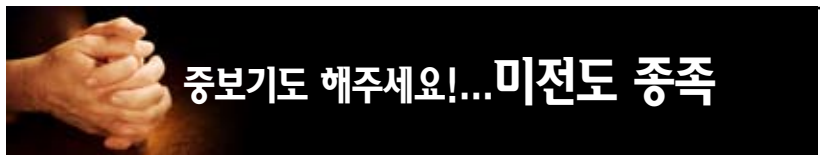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와 네팔의 문다 산탈(MUNDA SANTAL)



인도 북동부와 네팔의 문다-산탈족은 9개의 다른 종족으로 이뤄져 있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인도의 비하르, 서부 벵갈, 오리사 주에 분포돼 있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비하르 주 남부의 초타나그푸르 고원 산지에서 살고 있으나 또 다른 일부는 평야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 외에도 인도 전역에서 농사와 공장노동자로서 널리 퍼져 있다.

월신 북쪽 지역에 사는 7개 종족에는 인도와 네팔의 산탈, 부미즈, 코다, 마힐리, 호, 아가리아족이 있다. 나머지 2개 종족인 주안

고, 가다바족은 인도 남부, 벵갈만 해안 인근에 살고 있다. 문다어라고 하는 문다-산탈족의 고유 언어는 오스트로-아시아어계에 속한다.

문다-산탈족의 부족 문화는 산업화와 새로운 교통 연락, 부족의 복지 계획,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같은 외부 영향의 충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삶의 모습
문다-산탈 부족들의 기원과 관련된 전통은 불확실하지만 원래 초타나그푸르의 밀립 지대는 여러 토착 부족들의 족장들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다 평야 지대에 영국의 식민정부가 세워졌다.

1831-32년에 문다족의 반란이 있었고 1855-1858년에 산탈족의 봉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9개 문다-산탈족 가운데 단지 부미즈

족에게만 지도자가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문다-산탈족 인구의 거의 80%가 생계로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농촌 가정은 방직업을 가내 수공업으로 또는 마을 수공업으로 하고 있다. 사냥과 채집을 해서 불충분한 농업소득을 보충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부는 밀립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동 경작은 제한돼 있다. 또 관개지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다른 소득원이 개발됐는데, 북동부의 차 농장에서 일하거나 제철 공장에서 일한다든지, 힌두교 지주들의 일용 노동자로 일하는 것 정도였다. 초타나그푸르 고원은 인도에서 광산이 가장 풍부한 지대이므로 문다-산탈족의 일부는 광산에서 임금을 받는다. 남나 여자나 가족을 위해 수입을 얻으려 일을 한다.

부족들 중 극소수는 무역을 하면서 살며, 일부는 전통적인 장인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다. 그러한 2개의 부족으로는 코다와 가다바족이 있는데, 코다족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고 가다바족은 벽화를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힌두의 장인들이 부족들이 쓸 물건 대부분을 대준다.

이 부족들의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열리는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마힐리 사람들은 읍내 시장에 자기들이 만든 대나무 바구니 제품을 내다판다.

문다-산탈족이 사는 곳은 대개 강의 계곡과 밀립을 베어낸 침식지대, 광업과 산업 지대다. 사람들 대다수는 웅기종기 모인 마을이나 길이나 마을에서 산다.

문다-산탈족은 공동 조상을 둔 씨족으로 나뉜다. 씨족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종종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하위 부족에서는 부족 내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도록 허용한다. 또 주안고족을 제외한 모든 문다-산탈족에는 툴쿠리아(dhunkuria)라는 총각들의 공동 거주지도 있다.

문다-산탈족에게는 풍부한 예술적 유산이 있는데, 특히 음악과 춤이다. 대부분의 부족 총리에는 무도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 마을 사제가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마을은 "추장"에 의해 운영되지만 가

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차아트(panchayat)라는 종교학자 또는 승려가 자문을 한다. 부족 내의 대부분의 갈등은 토지 소유권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이다.

신앙
문다-산탈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 구별된 정체성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부족들 대부분이 힌두교도이며, 그 밖의 사람들은 전통종교를 지키고 있다.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의 "그들 마음에 있는 영원"(Eternity In Their Hearts)에서 그들이 섬기는 고대인인 "타쿠르 지우"(Thakur Jiu, 진짜 신)을 알수 있다. 그들이 "마란 부루"(Maran Buru)라는 큰 산맥의 신령을 무서워해 타쿠르 지우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조상이 현재의 이 땅으로 이주해오면서 마란 부루와 맹세를 하고 위령제와 마술, 태양 숭배를 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의 최고신은 태양신이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신 외에

또 힌두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였다. 힌두의 마을 사제는 의식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자이며, 많은 힌두 축제에 걸음은 토지 소유권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가리아, 부미즈, 가다바, 주안고족 등 일부 부족들은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소수의 부족이 선교단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직 1%도 채 안된다.

문다-산탈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을 회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후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영접한다. 이 소중한 부족들은 추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참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유지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은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DACA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도 같은날 홈페이지를 통해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계속해서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DACA 행정명령 폐지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이민자에 관한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불법 이민자의 자녀)은 매우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또 여기서 일을 했다"며 "일부는 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였고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DACA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것으로, 16살이 되기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DACA 프로그램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78만7000여명이 DACA 프로그램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의원 테러범, 공화당 소속 확인하고 충격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51) 의원의 14일 피습 사건으로 위싱턴 정가 충격에 빠졌다.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공원은 오전 한때 폐쇄됐으며, 이날 71세 생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미 의회는 모든 표결과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등 의정이 일시 마비됐다. 의사당 방문객의 신분증 검사와 경계는 강화됐다. 스컬리스 의원은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사격에 쓰러진 뒤 이송 도중 숨진 범인이 일리노이주 출신의 백인 자영업자 제임스 호지킨슨(66)이라고 밝혔다. 호지킨슨은 이날 아침 7시쯤 알래스다리아 공인 야구장에서 연습을 하던 직원들에게 다가가 공화당 소속인지 묻는 다음 라이플총을 꺼내 들고 50여발을 발사해 스컬리스 의원과 보좌관, 경찰관 등 4명을 다치게 했다.

의원들은 그의 범행 동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자 신변만안을 호소했다. 당시 야구장에는 공화당 의원 25-30명이 있었는데 경호 인력은 공화당 시절 3위인 스컬리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의회 경찰 2명밖에 없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크리스 폴린스 의원은 "앞으로 충기를 갖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범인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샌더스 의원 측은 "캠프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명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런 비열한 행동이 역겹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뭉칠 때 강하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호지킨슨은 2년제 대학을 나온 뒤 일리노이 등에서 주택검사업에 종사했으며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와 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지난 4월부터는 집을 나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등지를 돌아다니며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김정은이 워비어 살해했다" ...미 사회, 충격과 분노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으로 워비어가 사망 몇년 만에 사망하자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고 했고, 정치인들은 "북한 김정은이 워비어를 살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9일 "워비어의 비극적 죽음에 슬픔을 가눌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국 시민을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훌륭한 정권들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시 주지사는 "워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사악함을 다시금 증명해준다"면서 "그들이 워비어에게 한 짓은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혼수상태였지만 워비어가 귀향한 사실만으로도 기뻐했던 지인들 역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워비어가 다녔던 버지니아대 테러사 실리번 총장은 "워비어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비어가 의식을 되찾길 희망하며 그의 집 주변에 흰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리본을 매달던 마을 주민들도 충격에 휩싸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 정권은 워비어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그 책임을 워비어 부모에게 떠넘겼다"면서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해 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워비어를 다루다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워비어가 혼수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향 오하이오주 오는 모습을 '이상하고 슬픈 여행(strange and sad trip)'이라고 묘사했던 NBC방송은 그가 부모에게 목소리 한 번 들려주지 못한 채 숨진 사실을 부각시켰다.

미국 SNS에서도 워비어의 죽음을 애도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을 더 빨리 떠나보내고, 특히 워비어처럼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해 처참한 상태에 숨을 거둘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 가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다시는 북한을 방문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을 비난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워비어 사망 소식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BBC방송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 대부분이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을 비난하는 보도와 사실도 잇따랐다. BBC 등은 북한의 비인권적인 감옥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워비어 사망 소식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BBC방송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 대부분이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을 비난하는 보도와 사실도 잇따랐다. BBC 등은 북한의 비인권적인 감옥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워비어 사망 소식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BBC방송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 대부분이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을 비난하는 보도와 사실도 잇따랐다. BBC 등은 북한의 비인권적인 감옥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중외교부 'IS에 납치살해' 선교사들, 불법선교활동 조사중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중국인 교사 2명

이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여학원에서 생활하며 선교활동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된 중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납치됐던 중국인 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중국은 파키스탄 정부와 함께 법에 따라 불법 선교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루 대변인은 우선 "중국인 공민이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여행을 할 때 현지 법과 풍습 등을 존중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교사들이 살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파키스탄 측에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인 이번 사건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와 협조해 서둘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주도 케타시(市)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인 2명이 경찰로 위장한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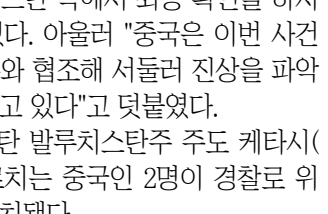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인 교사 2명이 작년 11월 한국인 원장과 또 다른 중국인 교사 11명과 함께 파키스탄에 입국했고, 3-5명씩 다니면서 현지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성경공부 중요하다" ...무신론자 도킨스 기독교 가치 인정

베스트셀러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대표적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1일 "종교 교육을 없애선 안 된다"는 도킨스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독교를 모르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은 현재 세계 최악의 종교"라고도 주장했다.

도킨스는 최근 열린 쉐넬햄 과학 페스티벌에서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없애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라면 종교 과목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에서 보면 성경 구절이 셰익스피어의 문장만큼 많이 인용돼 있다"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는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독교나 십자군 등을 모르면 역사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투적 무신론자라는 별명을 가진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 등의 저서에서 종교를 평가절하하고 신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다. 그런 그가 성경과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했다."

도킨스는 최근 연이어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모든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각 종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슬람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나쁜 종교다. 세상의 주요한 악이며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단 "모든 무슬림이 악하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이슬람국가(IS), 이란 정권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무슬림들이 있다며 "제대로 된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광신적 교리로 인해 그 누구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킨스는 이전에도 이슬람을 비판하며 기독교에 우호적인 의견을 남긴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파

키스탄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테러로 70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종교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을 노렸다"는 무슬림 테러단체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래도 종교 문제가 아닌가"라고 회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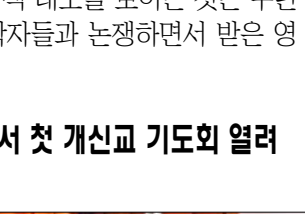
도킨스는 2010년 한 모임에서도 전 세계적 기독교인 감소 추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독교는 (이슬람처럼) 건물을 파괴하거나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교파도 배교자라는 이유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다"며 "기독교는 더 나은 종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변증가인 박명룡(서울 큰나무교회) 목사는 "도킨스는 여전히 무신론자이며 종교에 대한 반감과 호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기독교에 대해 일부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년간 기독교 철학자나 과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받은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서 첫 개신교 기도회 열려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그의 재림을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가 오시길 원하고 있는 거군요."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하 기독교동맹위원회의 조슈 라인슈타인 이사가 지난 7일 '제1회 예루살렘 기도회' 행사에서 전한 인사말이다. 행사는 이스라엘이 '국제 예루살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이날 예루살렘 크네세트(국회의사당)의 한 회의장에서 열렸다. 라인슈타인 이사의 축사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인 자리임을 적절히 감안한 내용이였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스라엘 국회와 예루살렘 일대에서 열린 기도회는 여러모로 기념비적이다. 이스라엘이 1917년 무슬림 치하에서 독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1967년 6일 전쟁(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개신교 형식의 기도회였기 때문이다.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에서 전·현직 크리스천 의원과 목회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도회와 더불어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현지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공관에 초청했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도회 개최가 한국인 선교사의 아이디어에서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수년 전,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계 인사 A씨가 정홍기(63) 루마니아 선교사를 만난 게 계기가 됐다.

1992년부터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 선교사는 현지 국회의원과 관료 등을 중심으로 한 조찬기도회 등을 섬겨왔다. 틈틈이 인근 국가나 타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조찬기도회 선교' 노하우도 전수했다. 예루살렘 기도회 개최와 관련, 행사 준비와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A씨는 정 선교사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의 국가-교회 조찬기도회를 견학하기 위해 방한했다.

정 선교사는 13일 "많은 분들의 기도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기도회를 통해 역사적, 영적 의미를 동시에 느끼는 감격을 맛봤다"고 전했다.

예루살렘 기도회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채의송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등이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아 참석했다.

정 선교사는 13일 "많은 분들의 기도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기도회를 통해 역사적, 영적 의미를 동시에 느끼는 감격을 맛봤다"고 전했다.

예루살렘 기도회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채의송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등이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아 참석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9. 전효택 (1877년경-1944년 이후)

전효택은 1877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1906년 30세가 된 그는 단신으로 도미했다. 그리고 도미한 다음 해인 1907년 말에 그의 이름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베르나디노 카운티 내 레드랜즈에서 나타난다.

의 영구 유지에 있었다. 1909년 이전에 한인교회는 본 교회의 영구 유지를 목적으로 매년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909년 1월에도 25명이 헌금한 총 헌금액은 108불이었다. 그 명단과 헌금금액

전효택은 전문인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자비량 목사였다. 1908년 그는 레드랜즈에서 이무경과 박창호와 더불어 레드랜즈 인근에 70에이커를 빌려 딸기와 감자 그리고 닭을 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듬 해부터는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1910년에는 레드랜즈 시내의 "원저 호텔"에서 취직하고 있었다. 1914년 9월 레드랜즈에서 권업동맹단이 조직되었을 때, 단원은 전효택을 포함하여 33명이었고, 자본금은 3만3천 달러나 되었다. 본 동맹단은 토지를 매수하고 영업을

그 지부가 조직되었다. 전효택도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동족상에, 환관상부, 향일운동에 뛰어 들었다. 1909년 전효택은 공립협회와 합성협회가 통합된 국민회 레드랜즈 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의 노력으로 본 지방회는 국민회 하르빈 지방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2불50센트의 기부금을 보냈다. 1909년 2월 레드랜즈에 거주하는 정두만이 신병으로 치료중인데 이곳 동포 20여명이 위문하고 병원비를 연조하였다. 이에 감사하여 정두만이 기부자 이름과 그 금액을 신한민보에 기고했는데 전효택도 있었다. 50센트를 기부하였다.

전효택은 목사로 섬기기 전에도 그의 기부는 있었다. 1908년 5월 유학생 조병진이 학비가 없어서 끈고 막심한 때에 전효택이 1불을 기부하였다. 그 해 8월 공립협회가 발간하는

액은 1불이었다. 1911년 4월에 레드랜즈 국민회 회관을 건립할 때 전효택은 50센트를 기부했다. 1914년 1월에는 국민회의무금으로 10불을 기부하였는데 이는 최고액이었다. 1918년 3월 전 레드랜즈 한인교회 목사였던 이경의가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병원비용 모금에 전효택이 1불을 기부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장로교회

전효택은 1918년경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1920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를 거쳐 스타투온에 거주했다. 전효택의 교회 생활은 기부와 함께 계속되었다. 1921년 3월 전효택은 간도참상 구제를 위해 2불을 기부했고, 그 해 11월에는 국민회에 5불을 기부했다. 1923년 8월에 그는 자신이 경영하던 이스트 9가 835번지의 채소가게를 판다는 광고를 냈다. 그런데 판매의 원인은 뇌병 때문이었다. 머리에 질병이 생긴 듯하다. 그런데 전효택은 로스앤젤레스로

년 1948년까지 2년간 교회를 섬겼다. 그가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로 시무한 해수는 총 12년간이다. 그런데 1936년 그가 나성한리교회 임원으로 선정되었다. 황사용 목사와 임성택 전도사와 김필권 전도사 외에 위원으로 전효택 등이 피선된 것이다.

전효택의 문화 명령의 공간은 특별히 국어학교였다. 1928년 6월 김종림의 주선으로 두 국어학교가 대한인 예배당에서 양 국어학교 학부형들이 합동하여 학부형회를 조직하고 새로 임원을 선정할 때 전효택은 서정우와 함께 재무로 피선되었다. 익년 10월에는 자국 정신과 자국 사상을 얻게 할 방침을 연구 실시하기로 하고 2세 국민들이 되도록 아동을 인도하기 위하여 '한인아동교육기관 기성 발기 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나성에서는 전효택도 선임되었다. 1930년 1월 한인아동교육기관 기성발기에 대한 광고에서 그는 김종림 등과 함께 나성 대표 기성위원 중 한 사람으로 열거되기에 이른다.



나성한인장로교회 (1929-1938)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효택



나성한인교회에서 개최한 도산 안창호 추모식



국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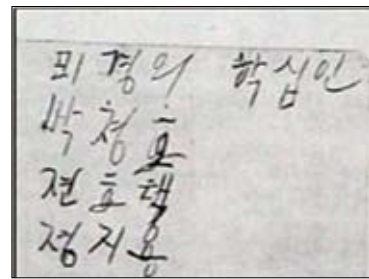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

1906년 레드랜즈에 한인교회인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가 백인교회인 레드랜즈 제일감리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진다. 본 백인 교회는 1891년에 흑인교회의 세움을 시작으로 1900년 초 스페인 교회와 유이온 한인교회를 세운 바 있었던 '선교하는 교회'였다.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는 백인교회가 세운 네 번째 교회가 된다. 본 한인교회는 한인 이주자들에게는 예배당 오른쪽 기둥에 세워져 있는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北美紫地韓人耶穌教會)'라고 불렀고, 영어권에는 예배당 입구 위에 걸려있는 대로 '한인감리교 선교회(Korean M.E. Mission)'로 알려졌다.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가 세워지던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등록 교인은 21명이었다.

전효택은 이데이벳, 박창호 그리고 전지영과 더불어 백인교회인 제일감리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 '학십인'(학습교인)이 되었다가 1907년 12월 8일 본 교회 담임목사였던 F.M. 라트커 목사의 세례문답을 받고 세례교인이 된다. 미국에 온 이듬해이고 30세 때다. 1925년 9월에 나성한인장로교회로 이명하기까지 그는 약 18년간 본 교회의 교인명단에 수록되었다. 다년간 사역하던 이경의 목사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함에 따라 전효택은 1908년 말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의 제 2대 목사가 된다. 박창호가 1909년 11월에 목사가 되기까지 전효택은 약 10개월간 목사로 봉직했다.

전효택의 첫 중점 사역은 전임자 이경의 목사에 이어 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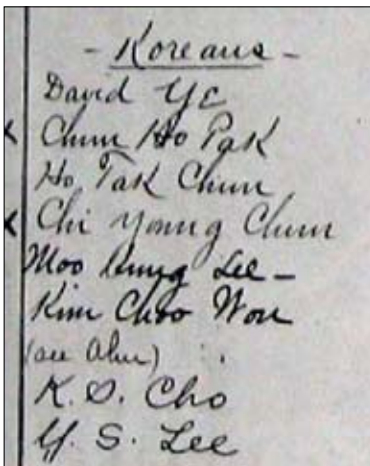
의 영구 유지에 있었다. 1909년 이전에 한인교회는 본 교회의 영구 유지를 목적으로 매년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909년 1월에도 25명이 헌금한 총 헌금액은 108불이었다. 그 명단과 헌금금액



학습인 명단, 세 번째가 전효택이다.

은 아래와 같다:

이경의 5원, 박동규 5원, 안석중 7원, 김창은 6원, 정도만 5원, 차춘택 5원, 조강석 5원, 이무경 5원, 박창호 5원, 전효택 5원, 윤태영 5원, 김희복 5원, 장원국 5원, 황보우 5원, 류재록 5원, 정규만 5원, 이윤오 4원, 최득규 4원, 이영수 4원, 이원길 3원, 박충섭 3원, 안상학 3원, 이운선 2원, 김용호 1원, 이능백 1원.



레드랜즈 제일장로교회 한인 세례명부

게시하기 위하여 본 단장인 오운이 플로리다 지방으로 떠났다.

1905년 4월 공립협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후 그 해 12월에 레드랜즈에도 16명이 발기하여



공립신보 1909.1.13

공립신보사에 전효택도 50센트를 기부하여 레드랜즈 찬성회 연금명단에 포함되고 있다. 그 해 11월 그는 공립신보에 매 삭 50센트를 기부했다. 당시 최고로 기부한 금

1906년 도미, 1908년말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2대 목사로 10개월간 재직 평신도자비량 사역...장로로 12년 시무 나성한인장로교회 예배당 건축(1938년) 안창호 추모식 개최, 국어학교 등 2세 교육과 단체 개인 후원에 적극 참여

이주한 후에도 채소상점을 경영한다.

1925년 9월, 그는 백인 교회인 레드랜즈 감리교회로부터 나성한인장로교회로 이명하였다. 1928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나성한인에서 개최한 한국 주일학교 대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여하였을 때 이들을 위한 환영회를 구성하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전효택이 20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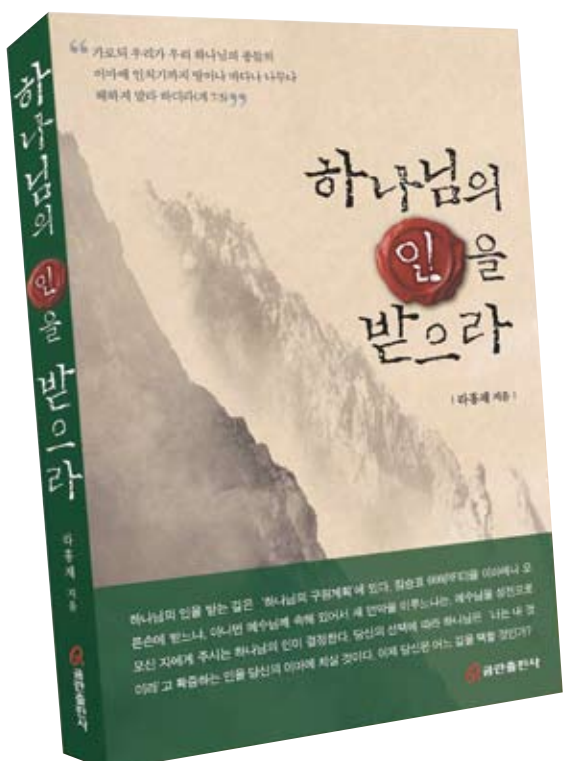
기부했다면 그의 교회 생활이 활발했음을 본다. 전효택은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한다. 그가 1929년 장로로 선임되어 2년간 시무하여 1931년까지 섬겼다. 1935년에 다시 장로로 선임된 전효택은 1943년까지 8년간 시무했는데 1938년의 예배당 건축과 안창호 추모식은 가장 큰 사역으로 꼽힌다. 1947년에 재차 장로로 선임된 그는 익

전효택은 기부를 이어나갔다. 1928년 3월 나성에 사는 이인이 자살하였을 때 장례비용을 위해 1불을 기부했고, 그 해 8월 이유형이 이대위 목사의 유족 귀국 경비를 모금할 때도 1불을 기부하였으며, 1931년 4월 일본 동경에 있는 한인 기독교 청년회 구제부가 동경에 거주하는 가없는 한인들과 고학생을 위하여 낡은 옷을 모집할 때 교화운동을 목적으로 구입한 활동사진기계 구입비를 위하여 2불을 기부하였다. 1937년 10월 임시정부 후원금으로 1불을 후원하였는가 하면 이듬해 1월 왜적의 헌식 수출 폐쇄를 후원하여 의연과 식물을 기부할 때 전효택은 식물을 기부한 자의 명단에 있었고, 1941년 7월에는 멕시코의 맛단사스에 1불의 구제금을 기부했다. 전효택의 슬하에 윤용과 윤성 등 두 아들을 두었고,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복무했다. 1944년 9월 이들이 휴가를 받아 전효택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전효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소년 했을 것이다. damien,sohn@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청교도 신앙 (33)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들어가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마저 파탄이 일어나 교회의 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도 비성경적인 이혼과 재혼이 거듭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개방풍조가 만연되며 심대의 미혼모들이 증가하며, 동성애가 법의 비호아래 가정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전면에서 등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형편이며, 청소년들은 폭력과 마약 흡입의 독소들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기독교 청소년들에게까지 전염되어, 기독교 가정의 신앙 모습과 정체성마저 흔들려가고 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의 불일치, 건전한 윤리의 부재, 탈 범주의적 사고와 행동의 확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시대의 조류 등, 이러한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들이 청교도들의 가정에 대한 견해와 삶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적 실천과 적용의 구체적인 장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 가정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활동과 관계를 더욱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생활을 통해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교도들의 견고한 성경중심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정생활에서도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확고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우리가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청교도 가정의 삶도 역시 성경이 가는데 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데 까지 서야한다는 개혁주의자 칼빈의 모두가 재현되는 가정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의 가정생활에 중심이 되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은 청교도의 초기 영국 공중체를 새롭게 하는 장이었다면 가정생활에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겠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자체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전형과 모델의 원판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1. 성경에서 언급되는 가정

성경은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가정인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결하다. 바울이 콜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보

를 우선해서 진술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가정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기독교 가정은 거의 교회와 유사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가정은 신약의 지상 교회 자체였기 때문이다(고전16:15).

특히 유대교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후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서로 만나는 근본적인 장소가 되었다. 시약의 서신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과 장소는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라고 할 수 있

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 오덕교의 "청교도와 교회 개혁", 원종천의 "칼빈과 청교도 영성", 조엘 비키의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등의 책의 도움을 힘입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청교도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

청교도들은 가정이 왜 이루어져야 할까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청교도들은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사회와 국가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성경적인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의 구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마다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의 차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초기 청교도와 동시대의 일반적인 사회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성경의 정공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와 씨름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들

가정생활에서도 성경의 권위와 가치 확고하게 드러내 각 개인의 가정은 신약의 지상 교회...가정은 교회의 축소형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 국가도 바로 선다는 성경적 신념 가져

낸 서신에서 가정에 대해 네 구절로 간단히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골 3:18),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3:19),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3:20),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찌니 낙심할까 함이라"(3:21).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5:22-6:4).

왜 신약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진술이 적을까? 창조 때부터 세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가정에서 근원이 되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몰두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 깊이 언급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가정보다 교회

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 가정교회에 관한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롬16:3-5, 고전16:19, 골4:15, 몬2).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교회에 관한 기록은 곧 가정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대부분은 개인 가정 단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단위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를 갖고 있는 셈이다. 교회는 가정을 감싸고 있는 우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가정은 교회의 축소형이 된다. 이것이 또한 청교도들이 가진 생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였던 청교도의 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청교도 신앙"과 알렌 카든의 "청교도 정신", 패커의 "청교도 사상", 서창원

아버자, "요즘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가 안보면 못살겠다는 듯이 서로가 결혼을 한다. 그러나 반년도 못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도망치고 이혼한다. 심지어 아이를 다섯이나 여섯이나 낳은 후에도 서로 으르렁거리며 할 수 없이 아이를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몸은 함께 있을지 모르나 마음은 이미 떠나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500년이나 되는 청교도 초기 시대의 사회상이다. 많은 가치와 사상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가정에 대한 모습과 이해와 문제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의 빛과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younsklee@hotmail.com

버팔로 와일드윙스 한인 120명 채용

미국의 유명한 워 체인레스토랑 버팔로 와일드윙스가 120명의 한인종업원을 채용한다.

KCCD(회장 임혜빈)과 버팔로 와일드윙스 코리아타운 레스토랑(대표 카림웹), Community Career Development(CCD) 알버트 유리배 전무이사, 시저 페레스 CCD 사업개발부

서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 KCCD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팔로 와일드윙스 한인타운점에 120명의 한인종업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주방 팀멤버, 바텐더, 케슈어, 안내, 근무조장 등이다.

관계자들은 채용조건은 버팔로 와일드윙스의 사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다. 급여는 시간당 10달러로 시작하지만 연봉 4만 달러정도 벌 수 있다. 단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사전심사에 참석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격시험과 7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인터뷰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카림웹 대표는 "자격시험은 영어로

보게 되지만 영어를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다. 단 영어가 힘든 분들에 대해서도 시험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사전심사와 인터뷰 장소는 Wilshire Metro WorkSource/AJCC(3550 Wilshire Blvd, Suite 500, LA)이며 연락처는 (213)365-9829.

(박준호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부정맥

술과 담배는 부정맥 악화의 원인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는 부정맥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증상이 없고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병력이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전문직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박 모씨는 지난 주말 심장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 박 씨는 주말에 이삿짐을 싸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일요일 오후에는 갑자기 심장이 몹시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박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목에서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느낄 정도였다. 또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다. 이런 증상이 약 5분정도 지속된 후에는 식은땀이 나고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박 씨는 심한 불안감 때문에 구급차를 불렀으나 응급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박 씨의 증상은 이미 호전된 상태였다. 박 씨는 일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2-3개월에 한 번씩 나타났지만 이번처럼 심한 증상을 느낀 적은 없었다. 몸이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박 씨는 기관지 천식으로 기관지 확장제를 주기적으로 흡입하는 것 외에 다른 약은 복용하지 않고,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으며 술은 전혀 마시지 않지만 커피는 하루 5잔 이상 마셔왔다. 검진 상 혈압은 조금 높은 편이었고 맥박은 정상, 심음도 정상이었다. 심전도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24시간 보형 심전도 검사 및 다른 심장 정밀 검사도 정상이었다. 박 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커피나 육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부정맥이란 심장 내에서 규칙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심장 전체로 전기를 전달하는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병을 말한다. 부정맥은 크게 맥박이 빠른 빈맥(tachycardia)과 느린 서맥(bradycardia)으로 나뉘는데 심각한 심장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빈맥을 유발하는 부정맥은 커피나 담배, 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육체적 피로나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도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

또 천식 치료 약물 등을 사용할 때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부정맥이 나타날 경우 심장질환의 신호로 생기는 부정맥인지 생명이 지장을 주지 않는 부정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부정맥인지 진단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광야의 소리, 율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토요칼럼

문을 열지 않으면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남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데 국수주의(國粹主義) 또한 팽창해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내 집은 지키되 너희 집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심보인데 나라뿐 아니라 종교도 그렇다. 이슬람(回教)이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은 거의 폐쇄되어 있다. 정치·종교·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까지 그네들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문체와 갈등이 되는 것은 그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와 다

른 종교는 개방해야만 된다는 이중적 잣대다. 이런 폐단이 말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물량공세와 테러 등 각종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던 대한민국에도 할랄식품이라는 당근이 제시되어 전복의 한 지역이 특화되기도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의도가 일시적으로는 좌절되었다. 기독교계의 극렬한 반발로 한국에서는 이슬람이 크게 세를 불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미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 공세는 여전히 위협적인 것이 사실이다. 공식적으로보다 여론의 추세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지 않으면 더욱 사악한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며 친 이슬람세력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면서 때로는 기도 안차는 억지도 일삼고 있다. 수업시간에 교수가 이슬람유학생들의 기도를 불허하자 종교탄압으로 이슈화하며 국제사회에 제소하는 비이성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자기들의 종교적 이유를 한국대학교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언어도단(言語斷斷)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남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말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들 이슬람은 한국인들에게 대한 종교침탈을 갖은 방법으로

획책하는 중이다. 한국의 역사는 이런 불합리한 외세를 여러 번 경험했다. 일본은 12, 3세기에 외국 의 문물을 수용했다. 표류해온 여러 나라의 일본과 다른 문화와 이념, 과학과 철학을 연구하여 그들의 힘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에 대한 대치는 일본과 너무도 달랐다. 그들을 그저 구경꾼으로만 취급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문은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들러리고 되고 말았다.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주권을 정당하게 내세우지 못한 채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 지리점을 번번이 당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현재도 우리의 문제인 남북한의 대립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뿐 우리의 국권은 형체조차 내세우지를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문만 닫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현실적 사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정체성치고는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따로 없다. 나는 닫겠으니 너만 열라고 하는 이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네, 과학과 철학을 연구하여 그들의 힘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에 대한 대치는 일본과 너무도 달랐다. 그들을 그저 구경꾼으로만 취급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문은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들러리고 되고 말았다.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주권을 정당하게 내세우지 못한 채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 지리점을 번번이 당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현재도 우리의 문제인 남북한의 대립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뿐 우리의 국권은 형체조차 내세우지를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문만 닫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현실적 사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일 뿐이다. 한반도의 핵을 인용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에 대하여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타당할 것인가?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는 약속강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국제사이다. 비핵화를 주장하려면 그들도 핵을 폐기해야만 하고 또 인성을 높이는 것도 핵이 없는 나라들이어야 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통하지 않는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서라도 쳐들어오는 것이 힘의 논리고 그 비합리적인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자의 설움이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를 지녀야 하며 남의 장점을 배우고 익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피지기는 결코 손자방법에만 있는 교훈이 아니다. hanmac@cni153.org

PCA-CKC 새 회장에 흥원기 목사 PCA 총회장에 한인 2세 알렉산더 전 장로 선출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새 총회장 이호영 목사 제36차 정기총회 “형제를 깨워 열방으로!” 주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개최된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CKC(Coalition of Korea Churches) 제 21회 정기총회에서 PCA-CKC 새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선출됐다.



PCA 미국총회와 같은 시기에 열린 CKC 회원들이 기념 촬영 했다.

△회장: 흥원기 목사(울네이션교회) △부회장: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차세대 부회장: Paul Bang(위싱턴중앙장로교회) △상임 총무: 김상선 목사(게이트웨이장로교회) △서기: 옥승룡 목사(위싱턴중앙장로교회) △감사: 이재홍 목사(울랜드섬교회).

기에는 일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교단의 인종 갈등 완화에 적극 참여해왔다. 총회원들은 664대 453으로 전 장로를 선출했다. 또한 PCA의 가장 큰 기구인 해외 선교부(MTW)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한인 2세 김로이드 목사로 선임하고 회의록 서기를 한인 2세 이후 한 목사로 선출했다.

으로 미국의 장래문제를 영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획기적 기회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나성근 목사(살롱장로교회 담임)는 “한인 회원들의 감격이 더욱 깊어졌으며 이젠 더 이상 우리를 마이너리티로 취급하지 않는 총회원들의 너그러움과 우리를 향한 기대에 한인 회원들은 모두 숙연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교회와 교단과 교계 그리고 나라의 영적 장래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역자로 세워주며 격려하는 그들의 깊은 마음이 전달돼 한인 노회들이 2세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상임총무 김상선 목사는 “한 세기 전에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단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며 “감사 내외 각 장로교단들이 저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장로교단은 PCA다. 교단적으로 한인교회에 경제적 후원을 하지는 않지만 한인교회들이 PCA를 원하는 이유는 전통있는 정통 개혁 장로교단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내놓을 수 없는 철저한 보수교단인면서도 열려있는 교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제 36차 정기총회가 “형제를 깨워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한 아리조나 그랜드 리조트호텔에서 열렸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36차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회장 반기열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는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부 등 부서별 행사를 강조했는데 이는 총회로 모이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신도 형제 분과들은 따로 모여 총회에서 평신도 대표들이 활약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풍성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정기총회를 통해 △총회장 이호영 목사 △제1 부총회장 최영이 목사 △제2 부총회장 오인균 목사 등을 선출했다. 기타 임원진은 △총무 강승수 목사 △서기 문동순 목사 △사회 김경도 목사.

첫날은 개회예배가 진행됐으며, 한국 기침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참가하여 축사를 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전체강의와 포럼, 오후에는 남침례회 총회참석과 여성교회 모임, 저녁에는 국내선교부 발표가 진행됐다. 셋째 날은 정기총회가 이어졌으며 해외선교부와 청소년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호영 목사는 골든게이트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1996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97년부터 씨월드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하고 있다. 남침례회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회장, 제2 부총회장을 거쳐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개회예배에서는 직전 총회장 김상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경주제일교회 김이태 목사와 공주 꿈의교회 안희목 목사가 강사로 참가해 설교를 했으며, 이용주 목사와 김재이 목사의 선포강의가 진행됐다. 예년대로 유스와 어린이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호영 목사는 총회장에 출마하며 △총회 주요 사업을 위한 지속성 유지(2-3명)를 구성 △총회와 각 지방회 및 개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위해 구체적 방법을 강구 △남침례회(SBC)와 한인총회 간의 관계에서 한인총회의 위상과 권익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여성교 분과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사모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임기 만료된 엄정호 목사에게 이호영 목사에 5명이 출마했으나 2명이 후보에서 자진사퇴함에 따라 3명이 경선을 벌여 강승수 목사가 선출됐다. 강승수 목사는 “한인총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사역 및 잠재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목회자간의 사랑과 헌신, 격려와 섬김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노소가 어울려 부른 신선한 찬양”

필라기독교방송 개국 21주년 찬양제

필라델피아 기독교방송국(사장 박등배 목사) 개국 21주년 찬양축제가 지난 18일 오후 5시 필라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대성전에서 열렸다.

해 “주님만이 방송국의 참 주인이 되시고 친히 경영하신다”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필라 교계와 천사회원, 후원업체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영생장로교회 백운영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1부 예배는 박등배 사장 인도로 김성준(선교국장) 기도후 백운영 목사가 시편 16편 2-5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와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협난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확신을 노래한 다윗처럼 성도들이 삶의 감사와 은총의 노래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사장 박상의 장로는 인사를 통

한금송은 하태규 집사, 한금기도 박종현 장로(이사), 광고 강승호 목사(이사), 안영규 목사(고문) 축도로 마쳤다. 2부 찬양 축제는 박종현 장로와 서수진 아내로서 사회로 10개 프로그램의 다양한 레파토리로 노소가 어울려 청중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찬양축제에 참여한 팀은 아래와 같다.

△빌라델비아 악대(지휘 조화연) △낙원장로교회 여성중창단(반주 한우미) △김원경, 하태규 이종창 △필라한인침례교회 찬양대 △필라 사랑의교회 아카펠라4중창 △특별순서 이우정 목사 스카메라타어린이중창단 △연합어린이합창단 △필라연합교회 남성중창팀 △영생장로교회 임마누엘합창단

마지막으로 청중들과 함께 ‘여기 모인 우리들’을 찬양한 후 박정호 목사(총무국장) 폐회기도로 마치고 다과로 친교시간을 다졌다. 방송청취 및 문의: (302)229-2782 조준 방송국장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



필라안디옥교회 사랑부 10주년기념 부흥성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앞줄가운데 호성기 목사와 강사 조현철 목사(오른쪽).

강사에 미주한인 첫 뇌병변장애 조현철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사랑부 10주년기념 부흥성회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사랑부(발달장애아를 위한 부서)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하나인 OICC(One in Christ Church)에 따라 장애를 초월한 하나님을 실천하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르는 부서다.

사랑부는 2007년 이래 호성기 담임목사가 받은 안디옥교회 비전 중

이번 사랑부 10주년 부흥성회는 미주 한인 최초의 뇌병변 장애로 목

생명의전화 창립19주년 기념 감사예배

근속상담봉사원들에게 감사장 메달 수여

한인들의 애환을 전화를 통해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생명의전화(대표 박다윗 목사) 창립 19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7일 오후 5시 30분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려, 근속 봉사원들에게 감사장과 박종갑, 서해주, 송영애, 이미라 씨에게 수

료증 및 상담원증을 수여했다. 박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철수 목사 기도, 소영애 권사 성경봉독, 남가주장로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정우성 목사(남가주 광영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시 100:1-5)이란 제목으로

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박다윗 목사에게 LA 시의원 David E. Ryu의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박다윗 목사는 10년 근속 상담 봉사원 박운우, 홍수지, 500시간 스티브 임, 300시간 황은석 상담원에게 각각 감사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류우길 목사(양로병원 원목)의 축도로 마치고 2부 만찬으로 이어졌다. 생명의전화는 1997년 10월에 사역에 뜻을 같이한 분들이 모여 발족

식을 갖고 시작돼 19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50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생명의전화 국제협회가 제정한 기본 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수료증과 상담원증을 받고 상담원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213)480-069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생명의 전화 창립 19주년 기념예배에서 축가를 부르고 있는 남가주장로 중창단.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전도대학교 봄학기 종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학장 허윤준 목사) 2017년 봄학기 종강예배가 6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김홍석 목사(뉴욕교회협회장)가 하며 청지기부부합창단이 특송한다. ▲문의: (347)836-8052

뉴욕초대교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선교지원 및 장학금 모금을 위해 골프대회를 연다. 일시는 6월 26일(월) 오후 12시 30분(샷건 방식), Pelham/Split Rock Golf Course. 회비는 120달러. ▲문의: (917)923-9660/박종규 장로, (917)628-7436/박근수 집사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 영화 상영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뉴저지 에지워터 멀티플렉스 시네마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하루 5회씩 상영된다. 이번 개봉은 뉴저지온누리비전교회(담임 마크 최 목사)가 협력한다. ▲문의: (201)461-4010

김동욱500닷컴, '복음뉴스' 로 제호 변경

기독교 인터넷 매체로 출발했던 '김동욱500닷컴'이 '복음뉴스'로 이름을 바꿨다. 도메인은 www.BogEumNews.Com.

4개월 전 이 사이트를 시작한 김동욱 목사는 지난 6월 7일 이메일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격려로 많이 자랐다"며 "사이트를 일부 변경해 '각종 안내' 게시판과 '구인/구직' 게시판, '교회소식'과 '사설'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부흥 특별 세미나"에서 박용규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거룩한 부흥, 성령의 부으심" 주제 박용규 교수 "부흥 특별 세미나" 시작

종교개혁 500주년/평양대부흥 110주년 기념 박용규 교수 "부흥 특별 세미나"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렸다.

"거룩한 부흥,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평양대 부흥운동(생명의말씀사), 세계부흥운동사(생명의말씀사) 저자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 역사신학)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대부흥110주년을 맞아 뉴욕에 머무는 7월과 8월 매주 월요일 강의를 진행한다. 최호섭 목사는 "이민교회에 애정이 많으신 박 교수님께 이 시대에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강의를 부탁드렸다"며 "작은 수가 모였지만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는 "사도행전과 부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구는 2장 33절"이라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약속(행1:4, 요14:16-17, 요15:26, 요20:28-32) 2)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후 예

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눅22:69, 요7:37-39) 3)'부어주셨다'에 주목하라(행2:17-18, 눅11:13,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2:3, 행10:44-48, 행1:15-18) 4)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 등으로 나눠 강의했다.

박용규 교수는 결론으로 △오순절 성령강림은 성령의 부으심 사건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주고 신약교회가 태동된 사건이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후 계속되고 있으며 오직 성취의 시작일 뿐이다(F. F. 부르스), △조나단 에드워즈의 증언은 '성령의 부으심'이 바로 부흥이다. △이 성령의 부으심,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기독교사연구소(소장 박용규)가 주관하고 아멘넷, 뉴욕영락교회, Revival Network이 후원한다. 자세한 문은 최호섭 목사(718-533-1272, paulsilas@yahoo.com)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50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50차 조찬기도회가 지난 15일 오전 8시 선한목사장로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사회 신철승 장로, 반주 손옥아 권사, 기도 김주열 장로, 설교 박준열 목사, 특별기도, 헌금 특송 장로연합회총장단, 헌금기도 배상규 장로, 회장 인사, 광고 김영호 장로, 축도 박준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열 목사는 마태복음 7장 13-15절을 본문으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특별 기도를 통해 정태관 장로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우화선 장로가 "뉴욕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와 다민족선교대회를 위하여", 주윤덕 장로가 "본 교회, 선한목사교회를 축복하소서!" 제목으로 각각 뜨겁게 통성기도 후 마침기도를 했다. 광고시간에는 고 김명신 장로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김주명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7월 기도회는 야외에서 다민족 선교대회 준비기도회로 모인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할렐루야대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2017 뉴욕복음화대회 제 3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2017 뉴욕복음화대회를 2주 앞두고 지난 15일 제 3차 준비기도회가 15일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인도로 기도 김재권 목사(뉴욕열매교회), 설교 조부호 목사(한누리교회), 특별통성기도, 광고 임병남 목사(총무), 축도 김성태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부호 목사는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자"(행18:5-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지를 말씀하고 있다"며 "첫째,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역에 필요한 2가지지를 예비해 주신다. 필요한

동역자와 물질이다. 둘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방해와 고난이 늘 있어왔으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뉴욕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대로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복음의 야성을 회복함으로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계기로 뉴욕이 복음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통성기도는 허윤준 목사(온교회)와 성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고 방지, 대회 후원을 위해, 마바울 목사(성인대회 강사 정성진 목사, 어린이대회 강사 김창렬 목사

위해), 정순원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해), 관캐더린 목사(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해)가 각각 인도했다.

2부 할렐루야대회 준비진행과정 소개에서 최정진 목사(뉴욕목사회)는 "요즘 경기가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집중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사도 잘 준비돼 있고 예기치 못한 교회들의 지원도 있어 할렐루야대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를 역행해 준비위원들이 전투적으로 임하고 있다. 뉴욕교계에 큰 잔치가 되도록 협력해주심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는 "2-30

명의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며 "할렐루야대회는 세계 한인교계와 한국교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내 교회, 내 일처럼 후원해 달라"고 말했다.

교협은 이날 새로 나온 포스터와 전단지 배포했으며 각 회원교회 주보에 광고를 요청했다.

할렐루야 2017 뉴욕복음화대회는 7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정성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다.

또 같은 시간 같은 건물 체육관에서 어린이대회가 진행되며 강사는 김창렬 목사(선안아이어린이선교회 대표)로 확정됐다.

한편 4차 준비기도회는 29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성결교회 제 3대 담임 이기응 목사부부(왼쪽)와 장석진 원로목사부부.

제3대 이기응 담임목사 취임예식 뉴욕성결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예배도 겸해

뉴욕성결교회 제41주년 기념예배 및 제 3대 이기응 담임목사 취임예식이 지난 18일 오후 5시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기응 목사는 담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역시 생각지 못했던 뉴욕성결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며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뉴욕성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기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원로목사님이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겨 오신 목회를 기반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기응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와 신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영목교회, 샘물교회, 신광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다 뉴욕성결교회의 청빙을 받고 뉴욕으로 왔다. 김미정 사모와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장석진 원로목사는 취임하는 3대 담임목사 축복기도를 통해 "주님의 목회 리더십을 배워서 뉴욕성결교회 양떼들을 사랑과 기도와 겸손으로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치리하며 지역사회와 뉴욕교계와 동포사회에 영향력을 끼치

는 교회로 복음전파에 힘쓰며 세계 선교에 매진"하기를 기도했다.

이기응 담임목사 취임예식은 박찬순 목사(중앙지방회 중부감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승기 목사(북부감찰장)의 기도 후 박승희 장로(청빙위원장)가 이기응 목사를 소개했으며, 류태우 목사(지방회장)의 인도로 목사와 교회대표에게 서약과 치리권 부여가 진행됐다. 이어 지방회에서 취임패를 증명했다. 앞서 열린 1부 교회설립 기념예배는 인도 이용우 목사(치리목사), 기도 이현수 장로(중앙지방회 부회장), 찬양 시은찬양대, 설교 류태우 목사(지방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축하의 순서에서는 김홍석 목사(뉴욕교협 회장)와 이의철 목사(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가 축사를 했다. 또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한국기성 총회장), 서울신대 83학번 동기들의 영상 축하가 진행됐다.

이어 김성태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이대우 목사(중앙지방회 남부감찰장) 등이 격려사를 했으며, 한국에서 온 대전CTS 오카리나합창단과 뉴욕성결교회 엘리엘 남성중창단의 축하송이 있었다.

4부 근속패 증정 및 폐회시간에 이기응 목사는 치리목사로 수고한 이용우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명했으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근속패를 증명했다.

이어 박희소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전우철 목사(중앙지방회 직전회장)의 만찬기 후 친교와 만찬이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50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이날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담당자들, 왼쪽부터 박동규 변호사, 강창훈 목사, 김홍석 목사, 조진동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조원태 목사.

이민자보호교회, 다카 드리머에 희망을.. 뉴욕교협 기자회견... 진행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 발표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보호교회가 지난 3개월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오후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장 김홍석 목사는 "교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민자보호교회로 인해 교협과 교회가 좋은 인식을 받고 실제적으로 한인사회를 도울 수 있고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현재 13개 센터교회가 확정됐으며 73개 교회가 후원교회가 됐다. 6월 18일(후러싱제일교회)부터 매 주일 한 센터교회씩 방문해서 세미나를 하고 개별적 법률 상담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정은 25일-뉴욕한인교회, 7월 2일-뉴저지필그립교회, 9일-아름다운교회, 16일-동양제일교회, 23일-한울림교회, 30일-효신장로교회, 8월 6일-뉴욕초대교회, 13일-늘기쁜교회, 20일-뉴저지세빛교회, 27일-뉴욕하은교회, 9월 10일-에틀란타중앙교회, 17일-뉴욕

우리교회. 교협의 이민자보호교회는 미국 이민자보호교회운동 주류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교회의 불복종운동과는 달리 법을 지키면서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면에서 방향의 차이가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이날 지침서와 법률, 각 교회가 갖춰야 할 내용, 성서적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민자보호교회는 ①셀터 지원 ②셀터지원 교회 후원 ③행정명령이 완화되도 정기적 법률지원과 청소년 문제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다카(DACA) 드리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들을 돕기 위해 칸타빌레 콰이어 연주회(7월 16일, 후러싱제일교회), 조이풀 연주회(9월중)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 다카 드리머 기금마련 음악회와 힐링캠프, 바자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제 2회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김성태 뉴욕목사회 회장,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구약성경 원문번역상 오역에 대한 해설집" 출판

뉴욕목사회 회장 김성태 목사(하베르장로교회 담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 "구약성경 원문번역상 오역(誤譯)에 대한 해설집"을 출판했다. 김 목사는 이 책은 한글개역성경 신약의 258군데의 성경오역을 바로 잡고 있다며 8월 마지막 주에는 뉴욕목사회 주관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출판식 및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신의 저서를 들고 있는 김성태 목사.

지난 16일 플러싱 거성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목사는 이 책이 신학박사(헨더슨신학교, Th.D) 학위논문은 재편집한 것으로 책 출판을 위해 1년간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목사는 "첫째, 목회자들이 성경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즉 성경신학을 알지 못하고 윤리도 딱딱 잣대로만 접근한다. 문제의 문제다. 단어 이해가 중요하다.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주석을 참고하는데, 주석은 위험하고 타인의 강해설교를 참고하지만 그 강해설교

가 옳지 않다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 단어가 오역돼도 전체 설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성경오역의 인간의 문제이며 성경관(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미나나 강의용으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 1천부를 증여했고 1천부는 뉴욕으로 발송돼 할렐루야서점에서 판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격은 권당 40달러.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능력 믿고 매일 승리하라” 벨리중앙연합감리교회 설립 34주년 기념감사예배



벨리중앙연합감리교회 창립 3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더 기도하고 앞장서며 연합하는 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설립 25주년기념 감사예배



올림픽장로교회 창립기념 감사예배에서 헌금송을 부르고 있는 청년들. 왼네는 말씀을 전한 박현승 목사.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나성순복음국제 금식기도원 제2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 부원장 이태준 목사, 사...

소망소사이어티 '제1회 죽음준비전문가 교육'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하...

R2R찬양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는 R2R 찬양제를 25일(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식이 25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제11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제11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가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퍼시픽팜스 컨퍼런스 리조트에서 28일(수)부터 7월 1일(토)까지 열린다.

벨리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대규 목사) 설립 34주년 기념감사예배가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55분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매일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온 백성들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했다.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동사 권대선 목사) 설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8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은혜가운데 드려졌다.

설립 25주년을 맞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온 성도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치하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축사했다.

프리마베라 오페라단, 처녀작 '라 트라비아타' 공연 8월 12일 오후 7시30분 Thousand Oaks Civic Arts

프리마베라 오페라단(Primavera Opera/총 제작자 Arthur Kim)은 '오페라의 재발견'이란 슬로건을 걸고 오는 8월 12일 첫 작품으로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의 막을 올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Boris Martinovich씨는 “지금 현실은 오페라를 쓰는 분들이 적고 더 이상 클래식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는 세계 최정상 이태리 성악가 Boris Martinovich, Massimo Simeoli, Alessandro Luciano, 한인 소프라노 Ransu Kim 씨가 출연하며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공연하게 된다.

뒤마의 소설인 '동백꽃 여인'(La Dame aux camelias)을 기초로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완성하여 1853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됐다.



제18회 장애인가족 초청 야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샬롬장애인선교회 장애인가족 초청 야외회 강사에 로렌 권, 안현미 카운슬러

샬롬장애인선교회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대표 박모세 목사) 창립 18주년 기념 '제18회 장애인가족 초청 야외회'가 지난 10일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렸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the West Coast region,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Baptist, Methodist, and Pentecostal churches.

교회 연합기관 통합 둘러싸고 물밑 움직임 분주

한교연, 한기총과 통합 의지...세부작업 추진위에 위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연합기관의 통합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교단 및 연합기관 간 입장 차이와 법적 절차를 둘러싼 문제 등으로 난제가 많다.

한기총의 통합 당사자 격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한교연과 한기총 간 통합은 계속 추진한다”며 통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 8일 열린 임

원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기총의 직무대행체제로 인해 통합 추진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교연이 한국교회 통합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현재 한교연은 한교연-한기총 간 세부통합 작업을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에 위임한 상태다.

통합 상대인 한기총은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법원이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후 임시총회를 열어 수장을 새로 뽑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대표회장이 ‘사퇴’가 아닌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임시총회 개최가 합법적인지 여부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에 따르면 이 대표회장은 현재까지 사퇴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단들 사이에서는 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기구 재편 구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교

총은 ‘장·감·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 7개 교단을 중심으로 올 초 발족된 교단 연합체다.

이들 교단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비공개 모임을 갖고 교회연합기구 통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단 소속 관계자는 13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단들을 중심으로 새 연합기관을 꾸려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내달 중 한두 차례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단 관계자는 “사적에서 일부 오간 얘기일 뿐 세부적으로 논의가 오가거나 진행된 게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백석과 대신, 통합 결의는 무효”

대신수호측 기자회견...예장대신 항소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수호(총회장 양치호 목사)는 1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9월 14일 제50회 총회에서 옛 예장대신이 예장백석 총회와 통합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교단 통합의 올바른 선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양치호 예장대신수호 총회장은 “우리는 양 교단의 통합을 단순히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진행할 것과 이를 무시하면 또 다른 분열과 아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해 혼란이 빠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6일 대신수호 측이 제기한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옛 대신과 백석의 통합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 14일 두 교단은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이름을 예장대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통합총회 직전 옛 대신은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제50회 총회를 열고 총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주도로 통합 관련 안건을 처리

한 뒤 백석 측과 통합총회에 합류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대신개혁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총회 장 밖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합총회는 원천 무효”라며 예장대신수호 총회라는 이름으로 잔류했다.

양 총회장은 “이번 판결은 ‘총회를 해산하고 타 교단과 통합하려면 회원교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통합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대신수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대신은 이날 총회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고 “교단 통합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며 “세상적 기준이나 판단이 통합을 갈라놓을 수 없으며 통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대신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5년 9월 14일 개최된 옛 대신 측의 제50회 총회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소송으로 교단 통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 “원고 측은 49회 총회와 50회 총회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50회 총회는 통합 반대 인사들이 총회장소 진입을 막아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인정할 수 없으며 통합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국가기관 최초로 쿼어축제 참여

국민세금 269억원 투입기관이 불건전 행사에 공신폭력 부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최초로 다음달 개최 예정인 쿼어축제에 공식 참여한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4일 홈페이지에 쿼어축제에 참가하는 단체 및 기관의 명단을 게재했는데, 국가기관으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의 이름이 올랐다. 국가인권위는 매년 269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기관으로 190여명이 재직 중이다. 부스 설치 기관 중에는 구글코리아

아리수 등 기업도 들어 있었다. 특히 동성애자 전용 에이즈 검사단체인 ‘ISHAP’과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의 친목 모임인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헬싱인 HIV/AIDS 인권팀)’ 등도 참여한다.

부스는 비영리기관 기준으로 15만원을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쿼어축제 때 부스에서 성기묘양의 과자와 초, 음란 사진, 자위기구,

술 등이 판매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개최된 쿼어축제 때 부스에서 판매된 술, 서울광장 관리 규정상 광장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남성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최초로 퀴어문화축제 부스를 신청했고 선정됐다”면서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다. 앞으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외교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 더 많은 국가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겨 봤다.

퀴어축제는 다음달 1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종 수리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

한교연 건강간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국가기관이 불건전한 행사에 뛰어들 것은 동성애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공신폭력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다수의 시민들은 타 기관과 중복되는 민원상담, 교육업무를 진행하는 국가인권위가 꼭 필요한 기구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삶의 질 개선 이렇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7대 의제 제안 촉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YCK는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의 신조어들이 이 같은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부채 주거 최저임금 비정규직 교육 청년복지 통일 등 7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것’이라 정의했다. 청년부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부업체·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0조 9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6조 3000억원이 청년과 여성층 대출이다.

EYCK는 “학자금 대출만 보더라도 고교 졸업 후 대학을 가야 취직이 된다는 허울을 만들어 놓고 대출을 받아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대학 무상교육 실시, 장학금제도 확대, 제2금융권 및 대부업 광고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주거빈곤층(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증가 현상도 지적하며 청년주거비(1인 가구) 지원 및 청년주거해당 기준 완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주거 빈곤층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10평 남짓)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현 최저임금 6470원은 지금의 물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하루 8시간씩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 등 주거비용과 휴대폰 등 통신비용, 교통비를 부담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YCK는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문화생활비와 외식비를 포함한 생활임금 지원, 현실성 습이나 인턴제도 등을 가장한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중지할 것을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4대 보험을 지원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 노동·동일임금을 실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원정직 직접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교육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을 없애고 서열을 조정하는 대학입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생활에 합당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일 의제와 관련해 “군인권 피해 사례를 철저히 밝히고 통일 기피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 풍성한 책 잔치

2017 서울국제도서전 ‘기독교 문화거리’ 조성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4일 개막한 ‘2017 서울국제도서전’에 기독교 문화거리가 조성됐다. 문화거리에는 한국기독교출판협회(기출협) 소속 20개 출판사가 10개 부스를 마련해 출판사별로 대표작들을 비치했다. 부스에 신간 서적을 비롯해 어린이 도서와 십자가, 다이어리, 놀이용품 등이 전시됐다. 전시장에는 오후가 되면서 교회학교 교사나 신학생, 청소년 등이 몰렸고 자녀 손을 잡고 나들이 온 엄마 그룹들도 눈에 띄었다.

각 출판사 부스에 얼굴을 내민 도서 중에는 ‘루터’ ‘칼뱅’ ‘종교개혁’ 등의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감안해 관련 신간들을 전시한 것이다. ‘루터의 길’(쿰란출판사) ‘종교개혁의 불꽃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신학사상’(CLC) ‘우

리는 양 교단의 통합을 단순히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진행할 것과 이를 무시하면 또 다른 분열과 아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해 혼란이 빠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곳에 와서 전시된 책을 모두 보려 하는 것보다 출판사 직원들을 만나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더 유익한 것”이라며 국제도서전을 즐기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편집자나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보면 한 권의 책을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8일까지 이어진다.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인 17일은 오후 8시,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폐장한다. 입장료는 5000원(학생 3000원)이지만 입장권으로 상품권처럼 각 부스에서 책 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부당행위 않겠다” 다짐 한국기독교공직자 선교대회

전국 기독교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며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제일교회(임종은 목사)에서 지난 17일 열린 ‘한국기독교공직자 2017년 선교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기독교공직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대회에는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청사, 17개 시·도청 및 국·

공립대, 교육청, 직능별(우정 경찰 교정 등) 선교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한국기독교공직자 선교연합회(공선연)와 정부세종청사기독교선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손봉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자문위원장은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기독교공직자들이 먼저 절제하고 정직해야 복음이 더 호소력이 있게 된다”며 “예수의 마음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장애우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h4>뉴욕셋미대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 오전 11:00 주일 2부예: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찬양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mygod@yah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sethsema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 1부예: 오전 09:00 주일 2부예: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부: 오후 08:00 새벽기도: 오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ny.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 1부예: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1148중기교회: 아침 7:00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516)883-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 NY 11223 www.k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 1부예: 오전 9:00 주일 2부예: 오전 11:00 주일 3부예: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chungliac@yahoo.com</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 오전 11:00 주일 2부예: 오후 1:30 주일 3부예: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liac@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 오전 9:30 주일 2부예: 오전 11:00 주일 3부예: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시온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1부예: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회: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917),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도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 오전 7:30 주일 2부예: 오전 9:00 주일 3부예: 오전 11:00 주일 4부예: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산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mitch.com</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 1부예: 오전 9:00 주일 2부예: 오전 11:00 EM영양예배: 오후 1:30 최요성경부: 오전 10:00 수요성경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목)</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 오전 10:50 영양성경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주미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p> <p>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성경부: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 오전 8:30 주일 2부예: 오전 10:30 주일 3부예: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 1부예: 오전 9:00 주일 2부예: 오전 11:00 주일 3부예: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교도소 선교칼럼 (24)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교도소 방문 간증이야기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한인 여성교회가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며 섬기는 등,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연합회에서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에 선교헌금을 하시므로 교도소 문서선교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성교회의 헌신을 통해 실제로 많은 책들이 배포되어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곳에까지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과 19일에는 전국 한인 여성교회 연합회의 김명래 총무님이 제가 교도소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교도소 선교를 하시므로 재소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김명래 총무님은 문서선교의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김명래 총무님이 속해 있는 뉴욕 한인여성교회 연합회에서는 2년 전, 모든 회원들에게 5불을 연초에 준 후 그것을 각자가 늘려서 연말에 다 모아서 교도소 문서선교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명래 총무님은 그 5불로 사랑과 카드를 사서 팔아서 선교헌금을 늘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로 많은 선교헌금을 정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 문서선교를 지원하고자 애쓰시는 여성교회분들의 사랑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으로 재소자들이 계속 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며 변화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님이 교도소를 방문하셨을 때에는 여자 재소자들의 예배와 기도모임에 참석을 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의 책들이 그들에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 총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소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문서사역을 후원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님이 쓰신 글을 나눕니다.

<교도소 문서선교의 현장>

텐버공항에 내리자 영하의 날씨에 함박눈이 필필 내리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날 새벽에 뉴욕공항을 출발할 때 날씨가 여름이었는데 5시간 30분을 서부

로 날아오니 날씨가 이렇게 다르다니, 미국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영희 목사님의 안내로 오후 시간에 덴버 교외에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를 방문하였다. 그곳은 이영희 목사님께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14년째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시는 곳이다. 목사님과 함께 도착한 교도소에서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을 스치며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가시철망이 쳐져있는 높은 담장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등록처에서 내 운전면허증을 내고 방문자라는 이름표를 받은 후 엑스레이 게이트를 통과하며 몸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으로 다가오니 철컹하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가만히 보니 그곳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컴퓨터로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교도소 내부에 있는 타워에서 카메라로 보면서 교도소관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문이 열리며 펼쳐진 복도는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목사님이 첫 번째로 안내한 곳은 도서실이었는데 많은 성경책과 소설책들 사이 한쪽 벽에 있는 책꽂이에 교도소 문서선교 책들이 잘 정리되어 꽂혀있었는데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그 책들은 재소자들이 많이 빌려가서 읽고 다시 가져온 것들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컨퍼런스룸인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저녁엔 여자 재소자들 25명이 사인을 했는데 그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설레는 기대감에 시간이 되자 20명의 여자 재소자들이 유니폼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였다. 찬양을 시작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찬양을 신청하며 부른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손을 펴시고 손마른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성만찬으로 마친 예배는 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광고시간에 한 여자 재소자가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주었다. 그들은 2년전 뉴욕연합회에서 교도소 문서선교를 위해서 달란트

헌금을 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

예배 후에 방문한 곳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의료지역이었는데 많은 여자 재소자들이 누워있었고, 특별히 내가 충격을 받은 곳은 자살 시도자들의 방이었다. 그곳은 개인별로 투병한 공간에 1명씩 들어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곳에 들어 있는 남녀 재소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방안에 담요를 덮어쓰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는데, 모두가 희망이 없어보였다.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교도소를 방문하여 이번에는 3곳의 여자 재소자 방들을 직접 심방하였다. 초범자의 방, 재범자의 방, 그리고 중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의 방에서 만난 여자 재소자들은 이영희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외치자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방마다 책꽂이에 교도소 문서선교로 발행된 신앙서적들이 꽂혀있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 와서 이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도소 문서선교로 발간되는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인여성교회가 교도소 문서선교 책들을 발행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주었다. 그 편지들은 교도소에서 받은 종이에 몽당연필로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감사의 내용이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기도제목들을 묻자 대부분 염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요구하였고, 마음의 평화를 갖고 복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교도소 문서선교를 전국연합회가 지난 4년간 선교헌금을 보내서 신앙서적들을 발행하는데 참여해왔다. 이번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보니 재소자들이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문서선교를 통해서 영적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이민자인 한인여성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채플린 이영희 목사님을 존경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체구의 동양여성으로 교도소에서 헌신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사회의 약자들이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교도소도 우리의 선교지이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 한인여성교회와 참여하도록 초청을 해주셨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36-40).

(김명래 총무, 한인여성교회전국연합회, 뉴욕한인교회)
yonghui.mcdonald@gmail.com



GBC Hawaii 일본어 복음방송

할렐루야, 평안하신지요?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일본인 선교를 위해 이곳 하와이에서 작년 9월에 시작된 일본어 복음방송은 지금 조금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충하여서, 처음시작 할 때에는 월-금요일 1시간씩이었던 것을, 이제는 매일 1시간씩 하는 방송으로, 방송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일본인 간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송에 나갔습니다.

또한, 이곳 하와이의 로컬 일본 기독교교신과 함께, 개별의 일본인 교회를 인터뷰를 통해 방송에 소개하는 Japan Gospel 이라는 프로그램도 추가하여서 방송의 생동감도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인방송을 듣는 한인들에게도 일본교회의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우선은 서로의 관심을 유도하며,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한인방송 시간대에도 추가했습니다.

지난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방송선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무시했던 일이 있지만, 그 후에 한 걸음 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 하셨습니다.

근년 초엔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채널이 허락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속 채널에 시간을 일부 빌려서 방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셨기에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일본으로 갔으면, 아무런 고도 없는 저희가 크리스천 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과 재정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LA로 부르시고, 다시 하와이로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남들이 모두 와보고 싶어 하는 하와이에 산다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지 이곳은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집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기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사역의 대상이 개도국이나 후진국

이 아닌, 선진국 사람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가 낯선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실제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변방 이스라엘 출신의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무시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충격요법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무엇,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또, 매일 2시간 방송을 하려고 할 때에 걸리는 문제가 인적, 재정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일본인 교회들의 부흥입니다. 일본인 교회가 먼저 부흥이 되어야, 그 교회 내에서 인적 자원이 나오고, 재정적 지원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적 목표는 전도입니다. 매주 전도를 하고는 있지만 열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와이의 일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월 1일이 되면 일본어 복음방송이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함께 동역하는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아직 동역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전도의 열매를 위해 씨 뿌리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 밭이 옥토 밭으로 준비되도록.
2. 일본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3. 일본방송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제자로 잘 준비되도록.
4. 저희 부부의 일본어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5.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감사합니다.
살롬.
장지영, 김성희 선교사
jyjeong1@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501)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cock Rd., Levittown, PA 19057 http://www.bethelchurch.org/</p>	<p>벨엘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수요, 유년, 종교대학: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유년, 유년대학: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p>	<p>안다루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s.org</p>	<p>앵커리지영원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원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퀸린노드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cmcr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월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자녀양육,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한다!

처치리더스.컴, 자녀의 포르노 영상 대처를 위한 5가지 실제 방안 소개(하)

어린이들조차 섹시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성생활을 하기 훨씬 전부터 (영화나 TV,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성은 정상적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매체에서는 폭력적인 성적 이미지가 난무하는데, 성교육은 그저 책임감과 위험성을 강조하기에 급급하다. 성관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성교육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3. 대화하지 않는 부모
“포르노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하소연은 부부간의 대화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들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마저 대화도 대부분 가족이나 집안 대소사와 관련된 가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제들일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르노 시청 훈련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포르노는 대화를 유도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르노는 비인간적 욕망이 추구하며 소통과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이다.

대화하지 않는 부모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로 직결된다. 자신의 부인과 말하지 않는 남편은 “내 아내는 소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과도 같다. 포르노만큼 여성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포르노에서 여성은 남자의 부패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종속된 존재로 사물화(객체화)된다. 이런 관계에서 소통은 단연 불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엢 4:29).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최선의 단어들과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엄마이자 당신의 부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내를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결혼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쏟아 부

특히 포르노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의 성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심심찮게 십대 자녀들의 방을 노크 없이 들어갔다가, 후다닥 컴퓨터 창을 내리거나 달아버리는 별개진 아들과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을 공감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처치리더스.컴” 크리스천 부모로서 고리타분하지 않게 성의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자녀들을 위한 포르노 영상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5 Surefire Ways to Train Your Kid to Use Porn).



부부간 풍부한 대화로 행복한 결혼생활 모습 자녀에게 보여야 책임 있는 행동 훈련, 비판 말고 칭찬하는 가정 분위기 조성

4.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행동
“포르노는 위험 부담 없는 관계 성을 주입시켜 그릇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아이는 어떤 행동도 큰 처벌과 위험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이버 세계인 가상공간은 이런 처벌과 책임이라는 위험요소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고 자란 아이는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아이들은 사랑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배

워야 한다. 이 말은 즉, 잘못된 행동은 적절한 처벌이 따른다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히 12:6).

이런 가르침과 훈련 없이 자란 아이들은 규칙과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 포르노에는 규칙이 없고 위험요소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포르노를 보는 것에도 큰 무리가 없다. 은행을 터는 것만큼의 노력과 위험 부담도 필요 없다. 포르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걱정 없이 자란 아이에게 포르노는 굉장히 유혹적인 매체다.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옳고 그름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포르노 중독자에게 이런 경외심이 없다. 옳고 그름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느끼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포르노를 시청했을 때 큰 처벌이 없었다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뚜렷하게 형성되기 어렵다.

많은 포르노 중독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낮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인데 즉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이가 잘 훈련이 됐는지 알고 싶다면 형제/자매와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포르노에 빠진 아이들은 보통 아빠보다도 엄마를 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존중과 사랑이 결여된 상태다.

5. 비판적인 가정
“비판과 분노는 상대의 가치를 가장 떨어뜨리는 행위다.”

혹시 당신의 가정은 서로에게 비판적이지 않은가?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분노와 짜증, 비판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강한 가정인가?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에게 포르노는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 된다. 삶의 고통과 슬픔을 피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다. 불안정스러운 그들의 삶에서 유일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포르노다.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없을 것

이다. 교회가 아무리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가정만큼 아이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가정이 칭찬을 나누는 삶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이들은 더 좋은 피난처에 상당히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포르노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된다.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은 비판하지도 혼내지도 비하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포르노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 감정에 충족되기 위해선 그저 포르노에 대한 죄책감만 잠시 목살하거나 합리화시키면 된다. 양심이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자기기만적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태지만 가정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탈출구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는 가족을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춘 가정을 만들면 된다.

결국 포르노 시청 훈련의 시작은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 아이는 반응하는 주체이다. 아이들은 좋은 삶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텅 빈 바구니처럼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할 일은 하나님과 협력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좋은 부모 밑에 반드시 좋은 아이가 있는 건 아니다. 나쁜 부모 밑에 반드시 나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부모의 행동만이 아이의 도덕성을 형성시키지 않는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들의 책임은 성경적으로 아이를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시19:13).

이 글을 통해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것인가?”

(4면에서 계속)

3.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믿고 섬기겠다는 순종과 신분주의 신앙 고백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같이 고백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고백합니다.

나사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 1:49)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부터 오병이어의 기적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앉은뱅이를 낫게 하신 것과 말씀으로 신하의 아들들을 고친 사건과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들은 예

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일5:13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는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 헤맸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만들어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곧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건강이 하나님이고 어떤 가정은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오랫동안 잘사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그 하나님은 힘이 세고 자기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주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인간이 만든 거짓 신, 우상에서 구원하기가 위함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광야에서 우상 즉

애굽의 황소를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과 패션의 중심가 뉴욕 맨해튼 한 복판에 힙과 풍요의 상징인 황소를 우상으로 만들고 이 황소가 곧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베드로에 묻듯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

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겸손히 그 발아래 엎드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믿고 따르겠나이다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며 역사하심과 같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더욱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logosnews@hotmail.com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2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등록비 무료
-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출석교회의 담당 교역자나 담임목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3. 사모의 스트레스 관리

1) 남편 목회자가 도울 수 있는 일

①집에서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 명령조로 사모를 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모의 스트레스는 누구보다도 남편이 먼저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목사는 집에서 한 남편으로 사모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함은 물론 위로와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 주며 관심과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②사모의 활동을 무조건 억제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남편 목사가 사모에게 "당신은 절대로 교회 일에 참여하지 말고 뒤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남편 목사는 사모의 성격, 역량, 능력, 은사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사모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잘 교육하고 훈련된 사모는 일 등 부목사의 몫을 감당할 것이다. 반면에 사모가 자기의 성격과 능력 면에서 전혀 교회 일에 참여하지기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모로서 왜 나의 목회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강요하면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견문을 넓히고 균형 잡힌 목회자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시간을 내어 사모와 함께 정서적인 삶이나 취미생활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

①사모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사모의 은사를 인정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협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목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②사모의 연장 교육의 기회와 지원. 담임목사가 연장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교회는 사모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③목회자 가정을 위한 전제적인 필요의 협력. 모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정적 건강해야 할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쳐 있고 병들어 있는 사모들에게 쉬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안식년이나 휴가 등을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놀라운 속씨에 감탄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즐긴다. 담장 곁에 땅을 파고 조그마한 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고 가드닝을 하면 너무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⑥나누는 삶을 실천하라. 누군가를 도와준다(시간, 기도, 물질, 재능 음식 등).

⑦낮잠을 자거나 윈도우스피닝을 간다.

⑧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맡긴다.

⑨스트레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화 부재'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⑩자녀들과 꼭 가족수련회를 갖도록 한다.

(2) 후원그룹을 갖도록 한다.

필자는 목회 사역 시 남편 목사가 같은 지역의 목회자들과 친교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번씩 사모님들과 함께 모였다. 서로 목회 정보 교환하고 식사도 하며 친교 하는 중에 서로 힘이 되었던 좋은 후원(Support)그룹을 가졌던 것에 늘 감사된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2)



이희숙 사모

어느 사모는 남편 목사가 "사모는 이래야 되고, 사모는 저래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니까 한번은 "내가 사모가 되거나, 내가 목사 할 테니" 하면서 고함을 쳤다고 한다.

③성도들 앞에서 사모의 약점이나 흠을 보지 말아야 한다. 남편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사모의 흠을 보거나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흠을 보면 사모는 좌절감과 슬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 목사는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어 사모를 신바람 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④사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삼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사람은 "인간이란 관계 속에 사는 것이다"라는 명언과 좌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 관계의 단절이 고독이다. 이런 1세들은 언어의 불통으로 인하여 고독이라는 깊은 감정 속에 빠져 살고 있다. '너'와 '나'의 대화가 있어야 우리가 '같이 산다'는 행복감을 느끼고 살 텐데 대화가 단절되면 고독하게 되는 것이다.

⑤함께 하는 시간으로 취미생활과 여가 생활을 가지라. 목회에 전심전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정서적인 삶의 균형을 갖춘 목회를 해야 한다. 어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는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고 문화적인 것이나 스포츠, 예술에 대한 것 등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였다고 한다. 목사가 무지한 것이 알려지자 무식한 목사로서 무시를 당하였다고 한다. 목회자는 각계각층의 성도들을 다 돌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회 사역 중 관계성 면에서 교회 사역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마라.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 셋째, 자녀와의 관계 넷째, 교회와의 관계 다섯째, 부모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성숙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출발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3) 사모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당사자인 사모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1)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가족스트레스 연구회에서 제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참고해 보자.

①집안일을 남편 혹은 아이들과 분담한다.

②일기를 써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해소한다.

③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과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한다.

④화장, 몸매관리, 옷 입기 등 스스로를 꾸미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홀로 있지 말고 친구와 만남을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한다.

⑤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시간을 가지며 즐긴다.

정원 가꾸기,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수영, 독서, 등산 요리 등등 다양한 취미를 찾을 수 있다. 필자는 흙디포나 식물원에 가서 화분의 꽃들을 한번 돌리거나 작은 화분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키운다. 자신의 생명의 신비로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3) 잘못된 견해들을 버리고 자유함을 가져라.

많은 사모들은 자신이 겪는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및 탈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결과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오는 증표다. 신앙의 결함이라는 등의 견해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들의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는 지경에까지 처했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다. 모세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11:15)라고 기도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회 사역 중 관계성 면에서 교회 사역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마라.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 셋째, 자녀와의 관계 넷째, 교회와의 관계 다섯째, 부모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성숙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출발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hlslec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내가 광야 나뭇터에서 기다리리라(삼하15:27-29)

두 제사장이 메고 온 법계를 닦은 도로 메어가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데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닦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옳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길 뿐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성도는 끝까지 신앙의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는 가드의 잇대와 닦은광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도 레위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독은 그 부탁에 순종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성도는 어떻게 신앙의 의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중요 순간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삼하15:30)

다윗이 평생에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만났지만 이렇게 큰 위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계와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돌려보내고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피신했습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깊은 슬픔에 우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

데 먼저는 삼하13:36, 그리고 지금 읽니다. 이것은 옛날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함으로써 생긴 죄악에서 온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통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수 아이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삼하15:31)

다윗은 왕의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광야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지만 실상은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 깊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아이도벨이 암살품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간절할 기

도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을 도와서 모사로써 활동한 아이도벨이 이제 암살품에게 갔으니 다윗은 짐작 못하고 죽을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매력입니다!

목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삼하15:32-37)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감람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올라갔는데 거기서 후새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앙의 좋

은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대책 없이 피신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제 철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친구들과 비상연락망을 짠 것입니다.

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삼하16:1-2)

15장은 고난 중에도 다윗 왕에게 용기를 준 좋은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16장은 다윗왕의 아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왕자와 같이 생활하도록 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시바라는 종을 세워 돌보게 하였는데 지금 다윗왕을 속이고 사울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거의 다 왔을

때 시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순수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므비보셋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시바에게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순수하지 못한 뇌물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토 오늘 내 아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삼하16:3-4)

성도는 이간질 하는 사람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바가 다윗왕에게 자기 주인 므비보셋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이 므비보셋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간질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제 삼자의 이름을 들어서 그 사람이 나쁘게 평가되게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을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시바의 이간질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므비보셋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므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넘본다는 므비보셋이 꽤 심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금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이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중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앙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김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이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중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앙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글로리아싱어즈 창단 20주년 및 제 6회 정기연주회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글로리아싱어즈(단장 김명희 권사)가 창단 20주년 및 제 6회 정기 연주회를 지난 18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었다.

김성국 목사는 “거집없이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의 이름을 알렸던 20년”이었다며 “성숙한 청년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간을 향해 서 있는 글로리아싱어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축하했다.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라”(롬 15:11) 주제로 열린 음악회는 1부 예배, 2부 연주회로 나눠 진행했다.

예배는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김수산 장로, 성경봉독(계14:1-5) 소철화 권사, 설교 전덕영 목사(보스톤장로교회 원로, “새노래로 찬양하

라”)로 진행됐다.

연주회는 최지혜 아나운서(단비 TV) 사회로 진행돼 글로리아싱어즈가 총 10곡을 불렀다. 이날 G2G어린이합창단과 Asaph중국어예배 합창단이 특별출연했으며 마지막은 이전 단원들이 참여해 함께 찬양했다.

1997년 성탄 축하 메시아공연을 시작으로 1998년 세계한인목회자제미나(필라 영생장로교회)에서 첫 선을 보인 글로리아싱어즈창단은 매년 세계를 누비며 목회자제미나에서 기량을 뽐냈다.

동 중창단은 이후 글로리아싱어즈로 이름을 바꾸고 김성국 담임목사의 다민족 선교에 발맞춰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G2G어린이합창단



Asaph중국어예배 합창단



글로리아싱어즈가 유원정 사회자의 지휘에 맞춰 찬양하고 있다.



김성국 목사가 장영춘 원로목사와 전덕영 목사에게 꽃다발에 전달하고 리유니티드 글로리아싱어즈와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다.

‘라모나 쉼터’ 방문기

운영자 박도원 목사(로고스선교회 회장), 크리스천저널(1981) 기독교의료상조회(1996)도 개설 기도원, 리트릿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자연경관 아울러 설비 갖춰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도원 목사가 라모나 쉼터를 공개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 크리스천투데이(발행인 서종천 목사), 크리스천헤럴드(발행인 알렉스양) 신문사 직원 6명은 LA 한인타운을 출발, 샌디에고 라모나 지역에 소재한 ‘라모나 쉼터’로 향했다.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가다 78번 이스트(East)로 달려 거의 3시간 만에 닿은 곳은 산세가 아름다운 한 쪽의 그림 같은 곳이었다. 산 정상에 빨간 지붕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쉼터. 차에서 내린 일행은 모두가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움에 도취됐다.

라모나 쉼터는 로고스선교회를 통해 크리스천저널(1981년 창간), 기독교상조회를 이끌어온 박도원 목사가 2010년 상조회 회원들의 건 강을 위해 개관된 수양관이다.

라모나 쉼터

시카고에 본 거주지를 두고 있는 박도원 목사부부가 우리 일행보다 먼저 쉼터로 와 계셨고 그곳에 거주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모님의 손길에 의해 마련된 저녁 만찬이 거실 한 칸에 자리한 주방에 준비돼 있었다. 우리 일행이 들어선

거실은 수십 명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큼직하게 지어졌으며 사방이 유리로 돼있어 어디에서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시원한 산바람과, 아름다움, 맛난 식사를 대접받은 일행은 박 목사의 인도에 따라 쉼터 곳곳을 둘러보았다.



125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산지를 차를 이용해 돌기로 했다. 이곳은 1 Retreat House, 2 Retreat House, Player House, Guest House 등 4동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 Retreat House에는 박 목사부부의 침실과 6개의 숙소가 마련돼 있고 대형 거실과 넓은 주방, 세탁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각 방에는 4개의 침대로 예쁘게 장식돼 있었다.

기도원

이러 차를 타고 내려간 곳이 기

도원. 산 정상에 넓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고 호수 곁에 흰색으로 장식된 기도원이 있었다. 이 기도원에는 단채로 5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꾸며져 있고 주방시설, 세탁장 시설도 준비돼 있었다. 예배실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홀로 돼있어 예배 후에 의

자를 치우고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마치 체육관을 연상케 했다. 이 모든 건물들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게스트하우스

호수 건너편에는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가 역시 빨간 지붕으로 예쁘게 지어져 있었고 현재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머물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곳이 2 Retreat House. 이 집 앞에도 역시 호수와

큰 바위들이 자연 그대로의 조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는 48명이 숙박할 수 있는 침실이 있다. 하우스마다 깨끗하게 마련된 주방시설이며 세탁장들로 누구든 와서 불편함 없이 목욕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갖춰져 있었다.

20여명이 앉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욕장정도 눈길을 끌었다. 욕장정 주위는 꽃들로 감싸져 있고 때마침 산위로 떠오른 보름달과의 어울림은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펼쳐진 구름들을 볼 수 있고 구름이 걷히면서 펼쳐지는 무지개도 시선을 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아침 햇살의 싱그러움을 그릴 수 있었다.

모두가 바쁜 일정으로 산속에서의 아침을 맞보지 못하고 서둘러 쉼터를 떠나야 했던 우리 일행은 LA로 돌아오는 내내 잠시 머물던 그곳을 못내 아쉬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박도원 목사는

그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만난 박도원 목사. 그러나 그의 선교적 일생은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1973년 7월 박도원 목사 가정 이 미국으로 이민해오므로 로고스선교회는 태동됐다.

당시 미주 이민 교회는 기독교 문서 매체 공급의 필요가 절감되던 때였기에 박 목사는 문서선교회의 일환으로 로고스선교회 조직을 준비했다고 한다. 1976년 로고스선교회를 창립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월간로고스’ 창간호를 선보였다. 그러다 1981년 ‘크리스천저널’로 개명하고 주간지 발

행을 단행했다고 한다.

박 목사는 “정기 간행물을 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전혀 모르고 철부지처럼 일을 저질렀다”며 “한주가 하루처럼 빨리 다가왔고 매주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와 기사 모으는 일들, 막대한 크리시엔저널은 여러 면에서 사경을 헤매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 숨 쉬는 생명처럼 보여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들려 주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고난을 딛고 견뎌낸 박 목사는 1996년 로고스선교회 산하에 의료 나눔 사역기관인 기독교의료상조회를 창립하게 된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미 보건성이 인정된 의료비 나눔사역(Health Care Sharing Ministry) 단채로 세워져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크리스천 헬스케어 나눔플랜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다.

초기에는 연간 수천 달러의 작은 불꽃이 바람에 위태해 보이기도 했지만, 개척 20여년 만에 가입한 회원들의 크고 작은 의료비를 수천만 달러 이상 지원하게 됐고, 열두 바구니에 채워졌던 부스러기는 회원들을 위해 영육간의 힘을 줄 수 있는 로고스하우스(쉼터, 기도원, 게스트하우스)

로 세워져 명실공이 성도들을 위한 나눔 사역으로 자리매김 됐다고 한다.

이미 20여년 가까이 회원들을 위한 노후를 쌓아온 기독교의료상조회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진을 구성해 일반 보험회사, 심지어 오바마케어와도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회비가 너무나 저렴해서 불신하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미주한인 사회와 교회는 물론 타민족들에게까지 신뢰를 받는 아름다운 하늘의 기업(벧전 1:4)으로 성장했고 선교회 회원들을 위한 쉼터까지 마련하게 됐다고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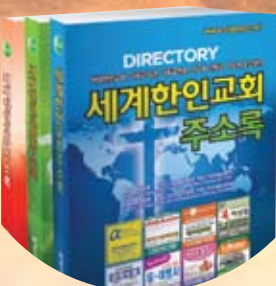
라모나 쉼터(17806 Oak Hollow Road Ramona, CA 92065)는 우선적으로 선교회 회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 외 교회 수련회나 기도회의 장소로도 대여 하고 있다.

쉼터에 관한 문의는 (888)777-8226(Ext.3210) or Direct (760)787-0230, Email: LogosHouse@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출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야함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